2010.09.01 No.75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우리 경제의 희망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기업 p27~55
2010년 세제개편안, 핵심은 친서민·친고용 p10~15
한·볼리비아, 리튬자원 개발 협정 체결 p8~9
영 앰배서더…젊은 층에 부는 G20 열풍 p18~19
wizard works.

수령 수령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자되세요!
백화점상품권 안부러운 알뜰한 상품권!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상인 여러분의 풍성한 수익이 열립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 상품권 관련 문의 1544-4090 · www.onnurigift.co.kr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국가경쟁력 원천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빈번해지고 관계부처들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대기업들도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원자재 직접구매 지원, 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을 서둘러 제시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업계대로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이 사회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아닌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은 경제 성과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에도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서민 체감경기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실현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까지 유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역할은 지대하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시장경제를 작동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다. 또한 이들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소득분배 기능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주체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경제도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간에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잡다기한 상거래를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만간 정부에서 시의적절한 대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떠한 방안이든 그 정책의 성공 여부는 대기업, 중소업계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은 부품 불량으로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를 야기한 도요타 자동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그들대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기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Weekly
2010.09.01
No.75(통권 176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정부의 창업 지원책을 활용해
국내 최대 위젯 개발업체로
자리매김한 위자드웍스의
표철민 대표와 직원들.
사진 · 조영철 기자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9.0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소상공인'

99.9퍼센트.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때론 밝은 양지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등 대기업들과 더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되어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이들에 대한 배려는 희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58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4호(8월 25일자) 기획특집 '서민금융, 미소와 햇살로 서민에게 희망을!'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소금융 연착륙… 서민들 마음속에 쏘옥

"서민에게 금융권은 그동안 오르지 못할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채에 의존한 결과 살인적인 고금리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자가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미소금융의 연착륙으로 이젠 서민들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_홍경석

미소금융은 기업이 해야 할 사회공헌

"미소금융은 기업이 해야 할 새로운 사회공헌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저나 주변 사람들도 제품을 사기 전에 그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눈여겨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이 사회공헌을 많이 할수록 기업도 잘되고 사회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기사를 앞으로도 많이 다뤄주세요" _강사현

74호 중점기획 '4대강 최초 가동보, 금남보 현장'을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벌써부터 현실화되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금남보는 유럽의 강변 같았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백로 개체수가 늘고 장마와 태풍에도 끄떡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었으면 합니다. 처음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강이 변화하는 모습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현실을 믿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_정민용

74호 '한일강제병합 100년, 문화재 반환 철저한 실무 협상을'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최근 을사늑약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선언과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에 이어 문화재 반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강탈해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조선왕실의궤〉 등 귀중한 문화재를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출 경위를 밝히고 일본과 적극적인 실무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_우정렬

73호(8월 18일자) 기획특집 '소통과 화합으로 하모니 코리아'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사회통합에 관한 좋은 글들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소통이 되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때 이 사회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_박태진

어떤 '미소'를 드릴까요

"기업이 해야 할 새로운 사회공헌입니다"

유럽의 강변 풍경 금남보에서 만나다

알립니다

‘맑은 공기 이야기’ UCC로 만드세요

9월 8일 ‘승용차 없는 날’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0 맑은 공기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 | 내가 만드는 일상 속 맑은 공기 이야기
공모 부문 | 동영상, 플래시 등 대기환경 개선 실천과 관련 있는 영상 콘텐츠(1분 이상 5분 이내, 1백 메가바이트 이하)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
접수 기간 | 9월 12일까지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 및 작품을 공모전 홈페이지로 접수
수상자 발표 | 10월 중 예정.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최우수상(1명) 환경부 장관상 및 3백만원 등 20명에게 상장과 상금 수여 예정

맑은 공기 UCC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210-2770 fresh-ucc.com

‘소음 없는 거리’ 아이디어 있으시죠?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시 거리 소음을 줄이고, 선진국 소음방지 정책의 긍정적인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소음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 | 소음 없는 거리 조성 정책 제안
공모 내용 | 소음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선진 소음정책 방안 및 도시계획 정책 제안서
공모 분야 | G20 도시(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주)의 소음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방안 또는 선진 소음정책 적용 사례나 방안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
접수 기간 | 9월 14일까지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 논문 요약본, 소논문 1편을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앞(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수상자 발표 | 10월 11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대상(1팀) 환경부 장관상 및 2백만원, 우수상(2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1백만원 수여 예정

한국환경공단 ☎ 032-590-3541 contest-soundproof.co.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보통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자를 말하죠. ‘OOOO 맞춤정책.’
6. 사업이나 가게 등을 처음으로 함. “2012년까지 청년OO자 3만명 육성, 청년 기술·지식OO 지원대책.”
7.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OO을 지키다.”
8.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
10.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을 이르는 말이죠.

세 로

1.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따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 “대기업과 OOOO, 이제는 상생이다.”
2. ‘열심히 공부하다’를 줄여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격려의 뜻을 담아 쓰는 말이죠. “OO하셈.”
5.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네 가지 성품.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르는 말.
8.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김치는 세계적인 건강 OO식품이다.”
9.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단위. 하나의 핵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전자로 구성돼 있죠. ‘OO력발전소.’

〈Weekly 공감〉 73호(8월 1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사통팔달 **4** 이판 **7** 소통 **8** 우리 **9** 문지방
세로 2 통합 **3** 달덩이 **5** 판소리 **6** 광화문 **8** 우방

〈Weekly 공감〉 7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경신·전남 무안군 삼향면
문화순·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오미선·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이현기·대구 북구 침산동
최종면·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남북관계 정상화로 경제협력 이뤄지길

정준호 통일부 홍보대사

저는 1995년부터 연기생활을 시작해 영화 〈두사부일체〉,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등 많은 작품에서 각양각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에서의 삶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안전국(NSS · National Security Service) 특수요원인 '진사우' 역을 맡아 제2의 6 · 25전쟁을 막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지요. 사실 그동안 '평화'라는 단어가 그리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사우로 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정말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리스〉의 명장면 중 하나인 광화문 신(Scene)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와 전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관심은 통일부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밖에서만 듣던 남북문제를 홍보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새롭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고, 주변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북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했더라면 우리 46명의 고귀한 장병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중단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지역에 투자한 대북기업들의 처지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통일될 경우 30~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을 제치고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도 독일이 통일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제적 위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듯이 남북관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고,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통일을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정준호(탤런트)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황복희 대전 동구 성남동

1. 복원된 광화문이 국민 품으로 되돌아와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다른 나라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위풍당당 코리아의 위상을 더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제주 거상 김만덕과 조선 말기의 개성 거상 임상옥은 평생 모은 재물을 죄다 털어 가난한 이들을 구한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사회통합의 밑거름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기부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3.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에 대한 〈Weekly 공감〉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하네요.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동

1. '한식 블로그 운영하는 외국인 파워블로거'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미소금융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3.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한 기사를 다뤘으면 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우리 경제 희망, 中企 ·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바로잡습니다

〈Weekly 공감〉 74호(8월 25일자) '공감 현장-기상청 총괄예보관실, 족집게 예보 위해 24시간 기상(起床)' 제하의 기사 내용 중 기상청 일부 관계자의 이름과 직함이 잘못 표기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현태 총괄예보관은 신동현 예보관으로, 수석 총괄예보관은 실제 직제에는 없는 직함이므로 총괄예보관으로 바로잡습니다.

떠나요, 녹색여행
말해요, 초록이야기
대한민국 녹색여행 수기 공모전
수기내용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지 (갯벌, 철새도래지, 습지 등), 농촌체험, 생태탐방로(제주 올레길 등) 체험, 우리강 걷기 여행 등의 녹색여행 수기
응모자격 제한 없음 (1인당 1작품만 접수)
출품규격 형식과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 (여행사진 적극 활용 권장)
출품요령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택배 가능
* 참가신청서 및 여행수기 함께 제출
접수기간 2010년 8월 2일(월) ~ 9월 30일(목) 18:00
접 수 처 (우)100-18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40 한국관광공사 11층 녹색관광개발팀 E-mail: makjuco@knto.or.kr 연락처: 02-729-9609
시상내역

입 상 구 분	상금	작품수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300만원	1점
금 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200만원	2점
은 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100만원	3점
동 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50만원	5점
입 선	문화상품권 10만원	20점
계	1,450만원	31점

*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포함)등의 일체의 권리는 한국관광공사에 귀속
* 수상 후 창작이 아닌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 참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양국관계는 이익관계 넘어 신뢰관계”

볼리비아와 리튬자원 개발 협정 체결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자원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약을 체결했다. 배터리 원료인 리튬 부존량이 세계 1위인 볼리비아와의 협력은 양국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과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자원 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뒤 웃으며 포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내 리튬자원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무, 통상, 개발과 자원 분야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뒤 ‘우유니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볼리비아 서남부 우유니 호수의 소금광산에는 세계 리튬의 절반가량이 매장돼 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휴대전화 등의 배터리(2차전지)에 사용되며,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자원. 현재 삼성SDI LG화학 등 우리나라 기업이 2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 기업 지원 위해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조기 개설

이 대통령은 이날 볼리비아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방한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는 단순한 이익관계를 넘어선 신뢰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간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한국기업 및 연구소들이 보여준 열의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볼리비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주한 볼리비아대사관을 조기에 개설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한국 기업인들이 현지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를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볼리비아

- 행정수도 : 라파스
- 인구 : 약 925만명(2008년)
- 1인당 국내총생산(GDP) : 1723달러(2009년)
- 종교 : 가톨릭 95%, 개신교 5%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8월 25일 서울에 도착,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오른쪽)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볼리비아의 국가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2억5천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한도를 설정하는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 습득에 큰 관심을 보인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2011년도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대상 국가에 볼리비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볼리비아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내년도에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국 정상은 "오늘 만남은 좋은 시작"이라며 "오늘 거둔 성과 이외에 향후 많은 자원외교의 성과가 기대되는 자리였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볼리비아는 인구 1천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7백달러에 불과한 나라지만 리튬 부존량은 5백40만 톤으로 세계 1위다. 리튬은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로 꼽히고 있으며, 그동안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을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우리나라는 1965년 볼리비아와 수교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자원외교 성과 기대되는 자리"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볼리비아에 파견돼 우유니 호수의 소금물을 활용한 탄산리튬 제조기술을 시연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1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양국의 리튬 협력 논의는 진전을 이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볼리비아 과학위원회와 '리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리튬을 비롯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와 대(對) 볼리비아 개발협력 사업 증대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양국은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모랄레스 대통령

"부존자원 활용하려면 한국 협력 중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 파트너도 찾고 있다. 놀라운 경제성과를 이룬 한국은 협력하고 싶은 국가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월 27일 LG화학 대전 기술연구원과 충북 오창 전지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엑토르 아르세 하원의장, 비비아나 카로 이노호사 개발계획부 장관 등 볼리비아 인사 10여 명이 동행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리튬을 소재로 한 2차전지 분야 선두국가인 한국 기업의 전지 연구소와 생산 현황을 보기 위해 이뤄졌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울 신라호텔에서 8월 26일 열린 경제 4단체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도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한국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벤치마킹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희망했다.

원주민 아이마라족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함께 남미에서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2006년 대통령에 오른 뒤 국가 기간사업 국유화 및 원주민 차별 철폐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왔으며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다.

2010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지원에 중점

고용 창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일용근로자 소득 세율 인하…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 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하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감면

경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동아DB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고용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와 성동구 주최로 열린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크루트 투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먼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바꾼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7퍼센트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 공제해주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새로 생긴다.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총 세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퍼센트 이내로 설정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돼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이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퍼센트 감면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5~30퍼센트 감면, 최저한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이 부여된다.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1백 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된다. 지원 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며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30퍼센트를 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퍼센트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퍼센트→6퍼센트로

경기회복 성과가 서민, 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내리기로 했다.

또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 밭을 매도 또는 임대한 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적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이면 50만원, 1인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 추가 →자녀 2명이면 1백만원, 1인 늘어날 때마다 2백만원 추가
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	퇴직연금,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3백만원→4백만원
일용근로자 원천세율 인하	8퍼센트→6퍼센트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	쌍꺼풀, 코 성형, 유방 확대, 주름살 제거, 지방 흡입 수술,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경마·경륜·경정장 장외 발매소 과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개인 20퍼센트→30퍼센트, 법인 5퍼센트→10퍼센트
세무검증 제도 도입	연 수입 5억원 이상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 소득 신고 전 세무사 검증 의무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신설	신규 고용 1인당 1천만원, 15~29세 청년 고용 시는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공제
고용창출 효과 큰 업종 지원 강화	청소업, 경비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중소기업 졸업 시 세 부담 증가 완화	중소기업 졸업 후 세 부담 9년에 걸쳐 단계적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출연금 7퍼센트 세액공제

자료·기획재정부

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이다.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도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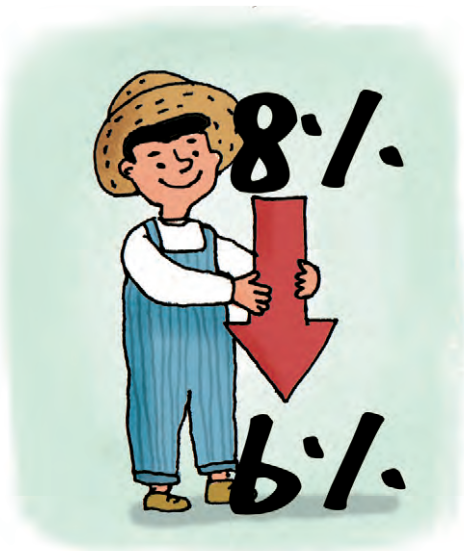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 기부금은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5퍼센트, 성실공익법인 10퍼센트)가 초과돼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중소 상공인에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 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를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5백만원까지 체납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도 2012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과 은행 등이 자금을 모아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한 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1~4년차에는 25퍼센트, 이후 3년간은 15퍼센트, 마지막 2년간은 10퍼센트가 세액공제된다.

주류제조면허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도 완화돼 기존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자본금 1억원, 창고면적 1백65제곱미터가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인구수 구분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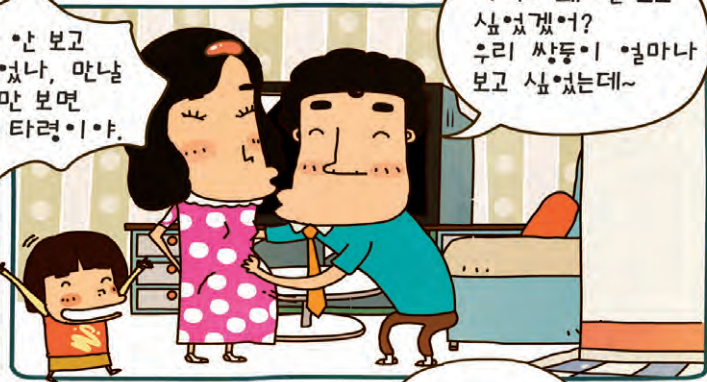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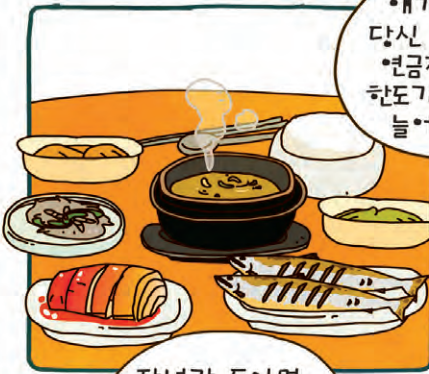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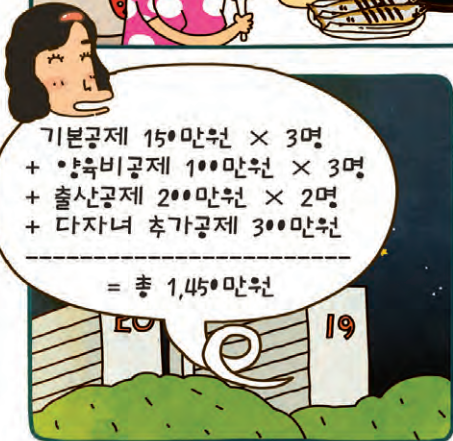
저출산 대비 다자녀 추가공제 2배로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 못지않게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등을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부품 등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자녀 많으면 혜택이 두 배!
소현아, 아빠 왔다~!! 여보~ 밥 줘~!
20
19
난 안 보고 싶었나, 만날 나만 보면 밥 타령이야.
자기~ 왜 안 보고 싶었겠어? 우리 쌍둥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얘기 들었어요? 당신 다달이 내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네요..
300만 → 400만
잘됐네. 밥 더 줘~
그리고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도 두 배로 는대요.
그게 뭔데?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셋이면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줬거든요.
그게 3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내년에 쌍둥이 낳게 되면 총 얼마나 공제받지?
다자녀 추가 공제에다 다른 공제까지 더하면 얘들 덕에 1,450만원이나 공제돼요.
기본공제 150만원 × 3명
+ 양육비공제 100만원 × 3명
+ 출산공제 200만원 × 2명
+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
= 총 1,450만원
20
19
게다가 3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20% 할인되고, 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면제되잖아요. 나중에 집 살 때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니들이야말로 효자구나!
연말 소득공제 받아서 비상금 만들 수 있겠다.

에 따라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이 보완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늘린다. 2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자녀 초과 시 받는 공제금액은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커진다.

또 여성근로자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해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세입 기반 확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세입 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 통일비용 등 재정 소요는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상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1건당 1백원에서 2백원으로 확대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되거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은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마, 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보면 전체 증가세액의 90.2퍼센트를 고소득자, 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 예고되며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G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세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확대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공제한다.

글 · 이혜련 기자 / 일러스트 · 문지혜

기획재정부 www.mosf.go.kr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고용 늘리면 법인세 줄어든다.
승진 발령
웅성웅성
이야~ 선배, 축하해요! 16년간 대리만 한 대리의 달인, 우리 안 대리님께서 드뎌 대리 딱지 떼는군요~
뭘~ 당연한 결과인데 작년에 돈이 안 돌아 회사가 어려웠잖냐?
그래서 내가 '상생보증펀드' 받자고 제안을 했지.
그게 뭐예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펀드인데, 보증 서주고 저리로 대출까지 해주었지.
야~ 안 과장님 없었으면 우리 회사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펀드에 출연한 대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회사 사람들이 다 들리게 크게 말해
승진
근데, 와~ 내년에 신입을 100명이나 뽑는다네요.
회사도 좋아졌잖아. 게다가 많이 채용하면 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한도가 올라간대.
승진 발령
무슨 말인지?
긁적 긁적
예를 들면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서 100명을 뽑으면 총 10억원, 200명을 뽑으면 총 20억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거지.
고용을 늘릴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나 법인세를 많이 깎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끄덕 끄덕
암튼 축하해요. 선배~, 날짜 잡죠. 한턱 쏴야지?
윽!
수첩

우리의 실제적 삶의 문제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은 먼 미래의 소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우리가 통일 미래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빠를수록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통일 준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통일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

지난 7월 6·25전쟁 참전국 후손들을 포함한 국내외 청소년 6백25명이 5일간의 평화통일대행진에 나섰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통일부가 마련한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걸으며 그동안 얼마나 분단 상황과 통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5월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했던 사람 중 60퍼센트가 통일이 20년 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의 폭넓은 통일 논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이뤄야 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도 제시했다.

"남북한 포괄적 협력 통해 한반도 미래 열어가길"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있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통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주제다. 누구나 통일을 노래하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추상과 먼 훗날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상적 담론의 수준에 머문 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로 나가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통일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소극적인 분단 상황 관리에 집중해왔다는 비판과 성찰도 제기된다.

최근 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결집해나갈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무엇이고,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투입될 재원과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통일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비로소 통일문제를 우리의 실제적 삶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스스로 통일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통일 준비 공론화 과정이 북한의 특정한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광복절 경축사를 전면적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이념대결은 종식됐으며 남북 간 체제경쟁도 사실상 끝난 지 오래다. 더구나 통일세 등의 공론화 과정은 흡수통일이나 북한 급변사태 등의 논의와는 맥락을 전혀 달리하는 문제다. 이는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일이다. 분단국가로서 국가전략의 필연적 목표이며 가장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남북한이 포괄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원한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라는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제 북한도 대결적 태도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동아DB

지난 7월 통일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평화통일대행진' 발대식에 참가한 6백25명의 젊은이들이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걸으며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7월 28일 강원 양구군 가칠봉 관측소를 찾은 행진 참가자들.

통일 미래를 향한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공존공영하며 발전의 길을 함께 걷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단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이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실현은 통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첫걸음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일 것이며, 당면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일 것이다.

통일 준비 공론화 과정은 통일 이루는 첫걸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막연한 통일비용의 부담감 속에 통일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증가해왔다. 젊은 세대들의 관심 영역에서 통일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일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자신들이 통일 미래를 이끌고 갈 주역임을 스스로 깨닫고 통일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의 가치와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비용과 함께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에 주목해야 한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며, 우리가 세계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인구 8천만의 중견국가로 부상하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력한 세계 일류 국가로서 부흥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전개 방향이자 인류 문명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 미래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빠를수록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함께 통일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통일 준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통일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G

G20 영 앰배서더들이 지난 7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젊음이여! 세상에 G20을 소리쳐라!"를 외치고 있다.

G20 영 앰배서더 20개팀 통합발표대회

"UCC와 SNS로 인지도 높이다"

〈사용자손수제작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난 7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0 홍보에 나섰던 'G20 영 앰배서더' 20개팀의 모든 활동이 8월 31일로 끝났다. 영 앰배서더는 이에 앞서 8월 25일 통합발표대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젊음이여! 세상에 G20을 소리쳐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홍보를 위해 발족한 'G20 영 앰배서더(이하 영 앰배서더)'는 그들이 내건 슬로건만큼이나 패기 넘치는 활약을 펼쳤다. 각기 3명씩 20개팀으로 짜인 영 앰배서더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학생 특사들이다.

지난 7월 11일 발대식을 가진 이들은 그동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중요성, 세계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다.

8월 25일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통합발표대회가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영 앰배서더 60명 전원이 참석해 열띤 발표 경쟁을 벌였다.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성과 거둬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더 나아가 모바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뜻밖의 성과를 거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쏟아냈다. 특히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복과 민요 게릴라 퍼포먼스

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얻어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된 한국팀 '3D'와 최근의 화두인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등 차별화된 활동을 펼친 터키팀 '폴라리스(Polaris)'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3D팀 서상희(중앙대 문예창작과 3년)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인사동, 청계천 등지를 다니며 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춤을 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외국인들이 환호하며 크게 반겨줘서 뿌듯하고 가슴 벅찼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또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한복을 갖춰 입고 다니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지만 힘든 줄 몰랐다"며 "대학시절의 가장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은 폴라리스팀 윤용기(고려대 영어영문학과 3년) 팀장은 "그동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며 "영 앰배서더 활동이 끝나가니 시원섭섭하다"고 아쉬워했다.

정책 제안 대학생 출정식 열어 G20 정상회의 성공 염원

어둠 속을 항해하는 선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홍보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싶어 폴라리스라고 팀명을 지었다는 윤 팀장. 폴라리스팀의 홍보 사례를 살펴보면 북극성 노릇을 하고자 애쓴 이들의 흔적이 배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나와 어울리는 G20의 지도자는?'이라는 애플리케이션과 요즘 가장 각광받는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 등을 이용한 홍보가 대표적인 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그에 맞는 G20의 지도자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요. 트위터 홍보도 반응이 좋았어요. 얼마 전에는 G20를 잘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메시지도 받은걸요."(웃음)

영 앰배서더 20개팀은 팀별로 기본 미션과 특별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기본 미션은 ▲전국 각지에서 로고송이나 퍼포먼스, 프리허그 등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G20를 홍보하라! 축하하라!'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의 문화, 여행, 음식정보를 알리는 '참여국가를 홍보하라' ▲국격 제고를 위한 공익성 UCC를 여러 편 제작하는 '4대 시민실천운동을 장려하라' 등 세 가지다. 사우디아라비아팀은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 고유음식 시식회와 사우디 전통의상 입어 보기 같은 온라인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별도로 진행한 특별 미션은 모두 네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의 G20 인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분석하는 '리서치하라!', 각 팀의 개성과 대표하는 나라의 특성을 살린 UCC를 만들어 'G20 with Korea'라고 적힌 카드를 노출시키는 'UCC를 만들어라!', 각국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의 서울 G20 정상회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오는 '대사관에 방문하라!', 발대식 플래시몹 티셔츠를 이용해 팀별 물물교환을 실시하는 'G20 티셔츠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특별 미션의 성과 또한 대단했다. G20 인지도 조사에서는 약 8천여 명의 시민 인터뷰를 유도하고, 대사관 방문 미션에서도 대사 11명의 축하 메시지를 받아왔다. 특히 중국팀은 83차례나 중국대사관에 e메일을 보내 대사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투혼을 발휘했다.

한편 한국경제교육협회는 8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학생 참여 정책제안 캠프인 'G20 Summer & Value up, Korea 2010'의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전국 23개팀, 1백6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염원했다.

일주일 뒤인 8월 24일에는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G20 정상회의인 'Y20 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1백10여 명의 국내외 대학·대학원생으로 구성된 Y20 대표단이 각각 G20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를 대표하는 23개팀을 꾸려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첫 오리엔테이션 이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두 차례 방문해 실제 G20 준비 과정을 체험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G20 영 앰배서더들이 8월 25일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열린 통합발표대회에서 그간의 홍보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김춘석 여주군수 인터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여주 발전의 발판"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중심에 경기 여주군이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점거 농성이 여주 이포보에서 벌어지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간 띠 잇기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춘석 여주군수를 통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염원하는 여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환경운동가들이 한 달 이상 교각 위를 점거하고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강 이포보.

"매년 홍수 걱정으로 살아온 여주 주민들은 홍수 피해의 고통과 우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의 소리는 외면당하고, 소수 의견이 다수로 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고 나선 겁니다."

8월 21일 경기 여주군 주민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인 데 대해 김춘석 여주군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주 출신인 김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과 경제발전을 공약으로 걸고 6·2지방선거에서 재선돼 여주 군정을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이 이포보 교각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국책사업을 방해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농성을 벌이는 행태는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 의견인양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여주 주민들이야말로 홍수 피해 당사자임에도 소위 환경운동단체라는 외지 사람들이 한강살리기 사업 현장에 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화가 났고, 이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들이 결속을 다지게 된 것이라고 김 군수는 설명했다.

"여주 주민들은 각자 바쁜 생업을 놔두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저는 여주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이포보 점거 농성에 여주 주민들이 화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여주지역은 1천5백35년 만에 호기(好機)를 맞고 있습니다. 서기 475년 '골내근현(骨乃斤縣)'이란 이름으로 여주가 역사에 등장한 이후 처음 맞는 기회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생태계 복원과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지

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홍수를 겪고 피해를 봐온 여주 주민들에겐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세력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포보 점거 농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평균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8월 20일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반대 농성자들에게 떠나라는 결정을 내려 여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이포보 공사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돼 한강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지길 기대합니다.

조영철 기자

김춘석 여주군수는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한 여주 주민들의 모습에서 여주의 밝은 미래를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반대 주장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여주 주민들도 '1백 퍼센트' 찬성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부의 반대 주장을 들어보면 대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다' '여주지역은 홍수 피해가 없다' '자전거도로는 여주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게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 반대행위가 지역화합을 가로막고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수의 편향된 생각으로 전체 이익을 훼방 놓는 행위가 있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당연히 환경은 보존돼야 하지만 지역발전이 없으면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보전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3개 보의 설치와 퇴적토 준설 등으로 기대되는 홍수 방지효과는.

해마다 홍수 걱정에 시달리는 여주 주민들은 '홍수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2, 1990, 1995, 2001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고,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홍수로 기억되는 1972년 대홍수 때는 여주읍 시가지에서 배를 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강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현상도 심해져 1995년 8월 7백22밀리리터였던 강우량이 2006년 8월엔 8백44밀리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여주의 3개 보는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여주는 보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로 수위가 1.0~1.9미터 낮아져 장마에 의한 홍수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와 지역경제 회생을 연계해 모델로 삼는 곳이 있으신지요.

역사는 회귀하는 특성이 있어 물로 흥했던 곳은 물로 쇠하고, 자원으로 부흥했던 지역은 자원이 고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주지역은 1895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정체만을 겪었습니다. 태화강 개발 후 '경제성장의 거점'에서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울산처럼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경제나 관광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을 마친 후 여주는 어떤 모습일지.

1469년 세종대왕릉이 광주(廣州) 대모산에서 옮겨져 오면서 여흥에서 이름이 바뀐 여주는 이후 이포, 조포나루가 한강의 4대 나루로 성장해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나 육상 운송로와 화폐의 발달로 여주는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근래엔 수도권정비계획법 발효로 공장, 대학교 등의 입지가 불가능해지면서 1960년대 10만명이던 인구가 지금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 환경정비는 물론 생태하천 조성과 자전거도로 조성, 이포·여주·강천보 설치 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조성되면 침체된 여주도 확 달라질 것입니다. 남한강살리기 사업 구간 중 여주 구간은 38.9킬로미터로 1조 9백1억원이 투입됩니다. 여주지역은 남한강 정비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서 2011년 말 공사를 마치게 되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가 홍수 해결책입니다”

여주 주민 ‘인간 띠 잇기’로 농성 해제와 사업 정상화 촉구

남한강이 흐르는 경기 여주군은 반복되는 홍수 피해 때문에 전국 어느 곳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절실한 곳이다. 몇몇 환경운동가들이 이포보를 점거하고 4대강살리기 반대 농성을 이어가자 보다 못한 여주 지역민들이 나서 ‘인간 띠 잇기’로 농성 해제와 4대강살리기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월 21일 경기 여주군 주민 3천여 명이 이포대교를 경유하는 3킬로미터 길이의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성공적인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주 경제” “1천5백 년만의 여주 발전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남한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는 여주를 떠나라”

경기 여주군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이포보 점거 농성이 한 달째 이어지자 참다 못한 여주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8월 21일 오후 이러한 글귀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여주군내 10개 읍면 주민 약 3천명은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고 이포보 농성 해제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주민이 만든 인간 띠는 이포리 금사면 주민센터에서 시작돼 남한강을 가로지른 이포교를 경유한 뒤 대신면 장승공원까지 약 3킬로미터 가까이 이어졌다.

여주 주민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인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이 지난 7월 22일 이포대교에서 바라보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 3공구 이포보 교각을 기습 점거한 뒤 한 달 이상 농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승공원은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을 지원하는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는 곳으로 이포보에서 약 8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다.

이들 농성자는 8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내린 퇴거명령도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들에게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각각 3백만원씩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주 홍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

이포보 점거 농성에 대해 누구보다 속이 타는 사람들은 여주 지역민들이다. 여주 주민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한강살리기가 절실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주민 변동구(78 · 금사면 장흥리) 씨는 “홍수가 나서 재래식

연합

황순걸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대표

"절실한 찬성 목소리 들려주고 싶다"

동아DB

"한강살리기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은 크게 내고 싶었습니다."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주도한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황순걸(48) 대표는 "우리의 바람은 더 이상 홍수 걱정이 없도록 외부단체의 개입 없이 한강살리기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포보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일부의 반대 주장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절실한 우리의 찬성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들리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72년의 홍수 당시 초가집 지붕이며 소,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황 대표는 "여주 전체 인구 10만7천명 중 3천명이 인간 띠 잇기에 참석한 것만 봐도 4대강살리기 사업이 여주 주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제 데모'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그는 "요즘 세상에 그 많은 주민들이 관이 시킨다고 뙤약볕 아래 몇 시간씩 나오겠느냐"면서 이번 일이 주민 결속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장실 오물이며 가재도구가 떠다니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주의 홍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결코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에는 홍수가, 다른 계절에는 가뭄이 번갈아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기후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주다. 여주군은 군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남한강의 범람으로 1936년 9백61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가 발생했으며 1972년 대홍수 때도 5백29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후에도 1990, 1992, 1995, 2001, 2006년에 큰 홍수가 이어졌다.

이러한 여주지역의 잦은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전국에 만들어지는 16개 보(洑) 중 한강에 설치되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보가 모두 여주군에 들어선다. 여주지역을 포함한 한강살리기 사업은 올해 8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약 27퍼센트를 마쳤으며, 내년 완공 예정이다.

한강 3공구 이포보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김용준 홍보소장은 "농성자들 때문에 보 위를 지나는 교량 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며 "농성이 지속되면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이포보 완공식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 3공구는 8월 26일 현재 전체 공정의 34퍼센트가량을 마친 상태. 김 소장은 "지금까지는 한강에 들어서는 3개 보 가운데 이포보의 공정(46퍼센트)이 가장 빨랐는데…"라며 농성자들에게 발목 잡힌 이포보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보름달 모양의 수중광장이 이색적인 이포보는 4대강에 들어설 16개 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로 꼽히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한 점이 특징이다. 양쪽 제방을 잇는 보 전체 길이는 5백91미터로, 보를 따라 커튼월 분수와 모래비치로 이뤄진 생태광장 등이 들어서고 주변 나루터와 연계한 수변 레포츠공간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 울산 태화강의 대숲공원 산책로.

4대강살리기의 미래 '울산 4대강'

'죽음의 강'에서 인간·자연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복원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은 1급수 수준의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다. 이젠 태화강뿐 아니라 동천, 외황강, 회야강 등 울산 주요 4대강이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된다. 수질 개선에 이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의 조성.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도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1단계 마스터플랜(2005~2009년)이 종료된 울산 태화강에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2단계 마스터플랜이 추진 중인 현재, 그간 발걸음을 끊었던 백로 떼가 무리 지어 여름을 나고 있는 것이다.

올여름 태화강을 찾은 백로는 7종 4천여 마리. 기껏해야 한두 종류가 찾는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다. 죽어가던 태화강의 물이 맑아지면서 먹을거리가 풍부해졌고, 대숲과 같은 안전한 은신처까지 마련돼 백로들에겐 최적의 보금자리나 다름없다.

실제 1단계 마스터플랜을 통해 태화강의 수질은 현저히 개선됐다. 지난 2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태화강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상류(덕현, 지현, 신화)와 중류(반송, 대암, 망성, 구영)는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각각 1리터당 0.4밀리그램과 0.7밀리그램으로 모두 1a 등급인 '매우 좋음'(BOD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으로 나타났다.

삼호교와 명촌교를 잇는 하류지점도 1리터당 2밀리그램으로 '좋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하류는 2002년에 BOD가 무려 1리터당 4.4밀리그램에 육박했고, 2006년에도 1리터당 3.2밀리그램을 나타내 도시의 젖줄이라고 하기엔 수질이 부끄러운 상태였다.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울산시는 태화강 주변 생태복원과 더불어 동천, 외황강, 회야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8월 10일 '울산 4대강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 실무회의'를 열고 총 9천4백5억원을 투입해 70개 관련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태화강 생태복원 사업에 총 9백39억원 예산 투입

태화강에 대해선 2단계 마스터플랜에 따라 무거천과 명정천에 비점오염원을 설치하는 등 추가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생태복원 사업을 병행한다. 생태복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백39억원. 태화강 삼호지구 26만 제곱미터에 백로와 떼까마귀 등의 철새공원을 조성하고, 태화교~학성교 구간에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울산지구 2.68킬로미터를 정비한다.

선바위와 굴화를 잇는 중류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연

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강 내에 수달보호지구를 지정하고 중·상류에선 습지와 수변식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형 호안도 정비한다.

친수·레저 분야에서도 12개 사업을 벌인다. 현재 태화루가 복원 중이며, 선바위 일원 41만 제곱미터도 공원으로 조성된다. 태화강 전 구간에 1백 리 자전거길이 생기고 천전마을과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구간 등을 잇는 1백 리 오솔길도 만들어진다.

중구와 북구 사이를 흐르는 동천 14킬로미터 구간에는 수질 개선을 위한 2개 사업과 생태복원 2개 사업, 친수·레저 분야 9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부권 젖줄' 회야강에 자연형 어도 및 친환경 호안 등 정비

수질 개선 분야에선 이미 하루 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농소하수처리장이 건설 중이고, 농소동 하수관거 36킬로미터를 부설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생태복원을 위해 사업비 1백33억원을 들여 7.5킬로미터의 자연형 호안과 여울, 소 등이 조성되고 수변식생대와 조류 서식지도 들어선다.

이 밖에도 동천 주변엔 역사문화탐방로가 조성된다. 내황성황당과 약사천을 잇는 '무역항길', 약사천과 병영성을 거쳐 산전샘에 이르는 '병영성길', 산전샘과 동천을 잇는 '꽃가람길' 등 세 곳의 탐방로가 시민과 자연의 소통 중심 역할을 맡는다.

2008년 9월 기준 수질(청량천~두왕천 합류지점)이 BOD 1리터당 5.8밀리그램으로 하천의 탁도(濁度)가 높은 외황강의 경우 수질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석화단지와 개운교, 처용함 하류 사이를 1, 2구간으로 나눠 하상 준설 공사가 계획돼 있으며 청량, 두현 일원에 시설용량 하루 1백50톤의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다.

하루 8만5천 톤 시설용량의 용암폐수처리장도 건설 중이다. 이어 갈대 탐방로와 조류 생태공원 등 생태관찰지구가 조성되고, 자연 자정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구도 만들어진다.

'남부권의 젖줄'로 불리는 회야강은 일단 체계적인 수질 개선과 유지 유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연형 어도(魚道) 및 친환경 호안 등을 정비한다. 곡천천, 대복천 합류부와 삼평 남창천 합류부엔 식생 정화수로와 하천 정화시설이 들어선다.

삼평~서생교 구간엔 37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상 준설 공사가 시행된다. 충분한 유량 공급을 위해 석천과 망양에 지하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삼평 하천구역과 하서 연안구역엔 생태습지를 조성해 생물 서식환경 보존에 나선다. G

글 · 유재영 기자

박인필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강 생태 복원해 세계적 하천으로 가꿀 것"

박인필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태화강의 재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 하나다. 울산 주요 강의 수질 및 환경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에게서 태화강 사업 성공의 비결, 나머지 3개 강의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 계획을 들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태화강의 성공 사례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울산이 산업수도로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화강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하류지역 수질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됐다. 이러한 태화강의 치부를 씻어내기 위해 울산시는 2002년 이후 생활오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강바닥의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태화강은 1급수의 생태하천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강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복원해 세계적인 하천으로 가꿀 것이다.

태화강에 이어 다른 3개 강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동천, 외황강, 회야강 역시 울산의 중요한 강이다. 강이 통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태화강을 포함한 4개 강의 생태복원을 계획했다.

강마다 사업 방향의 특징이 있다.

동천은 비가 오면 물이 급격히 불고 갈수기 땐 갑자기 물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물이 상시 흐를 수 있도록 2015년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외황강의 경우는 하상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과 함께 억새 등으로 정화식물지구를 조성해 자정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회야강은 하류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쉼터'라는 방향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여러모로 태화강 등 '울산 4대강' 정비사업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선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화강 사업 시작 당시엔 무조건 오염원이 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생활하수관거 공사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울산에서 빗물과 오수를 걸러내는 분리 수준은 80퍼센트를 훌쩍 넘는다. 3년 이내로 각종 하수처리시설 등이 준공되면 95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둔치를 정비하고 산책로, 공원 등을 만들면서 자연생태까지 살아났다.

이제 울산시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현재 태화강의 수질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강의 어종이 풍부해졌다. 태화강엔 강 청소선이 다니는데, 이 배가 뜨면 고기들이 점프하면서 배를 따라간다. 도심에선 4만~5만 마리의 까마귀 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울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미래를 이런 모습에서 이해하고 싶다.

제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아름다운 편지쓰기 공모전

아름다운편지쓰기 공모전
2010.9.30(목)까지
T.02.2279.9000

2010년, 「아름다운편지」에 색다른 행복의 적금을 드십시오.
2040년, 그 진한 감회와 감동은 가족애로 승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운편지'는 자신이 30년후의 부모가 되었을 때를 상정(想定)하여, 자녀에게 자필로 쓰는 편지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따뜻한 가족애와 무한한 상상력, 창의력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0년 후 내 아들·딸에게 보내는 편지

- **행 사 명** 전국 초·중·고등학생 「아름다운 편지쓰기」
- **응모기간** 2010년 9월 30일(목)까지
- **자　　격**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재외동포 청소년, 해외 유학생
- **주　　제** 30년후 내 아들·딸에게 보내는 편지
- **응모요령**
  - 주제에 맞는 편지글을 편지지 1~3장에 직접 자필(필기구 사용)로 작성
  - 편지지 규격, 디자인은 자유
  - 성명, 학교·학년·반, 연락처(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를 기재할 것
  - 단체(학교, 학년, 학급별)로 공모 시 한 봉투에 넣어 우송할 것
  = **선생님 부문**(편지 겉봉 상단에 '선생님 부문' 표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접수처** (우100-273)서울 중구 필동3가 28-1
  캐피탈빌딩 1층 <아름다운 편지쓰기 담당>

- **우수작 발표** (2010년 11월중) 아름다운교육신문, 홈페이지, 개별통보
- **시상내역** (초·중·고등학교 별로 시상함)
  - 대　상 : 장관상 • 금　상 : 교육감상 • 은상·동상 : 기관장상
  - 우수상 : 1000명 (대상부터 동상까지의 편지는 초·중·고 별 단행본으로 발간합니다.)
  - 지도교사상 : 교육감상, 국회 교과위원장상

* 선생님부문의 『아름다운편지』도 받습니다.(선생님의 편지는 개봉하거나 심사하지 않음)
* 2010년 『아름다운편지』 단행본 표지 디자인을 공모합니다.(홈페이지 참조)
* 접수된 편지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합니다.
  (제1·2회 아름다운편지는 현재 방충·방습처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제3회 아름다운편지도 30년간 보관후 2040년 자신의 아들딸에게 보내집니다.)

※ 문 의 (02)2279-9000, www.helloedunews.com

주최 : 아름다운교육신문 / 아름다운편지운동본부

후원 :

협찬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소상공인’

99.9퍼센트.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때론 밝은 양지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등 대기업들과 더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되어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이들에 대한 배려는 희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크는

'상생의 나라' 이정표 찾아야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부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암울한 그림자가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가야 할 때다. 양극화를 뛰어넘어 '상생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져야 한다.

"최근 가속페달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가 대규모 리콜로 확산된 도요타 사태는 성장을 중시한 무리한 원가절감이 사태 발단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도요타 사태가 한국 자동차업계에 주는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2000년대 이후 해외 판매와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전략을 전개해온 도요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시장 확대와 원가절감 전략'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국내 자동차업계에 '제2의 도요타'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고를 내놓았다.

도요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품질 결함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완성차 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완성차 기업 근로자와 부품 중소기업 근로자 간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충고였다.

이는 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데에는 국내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가격 고품질' 부품 공급이 크게 공헌했으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는 낮은 이익률을 가져오고, 이는 낮은 연구개발(R&D) 투자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도요타의 경우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 경제'를 줄곧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소상공인 등 4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은 물론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상생 경제'에 힘을 실은 것은 6·2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절실했던 상생 경제의 필요성에 화답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수준까지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경기 회복세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더디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신경 써야"

사업체 수로 볼 때 '0.1 대 99.9' 비율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기회복 격차는 생산지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대기업 생산지수(제조업체 기준)는 1백50.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1백31.2) 대비 14.7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백24.5로 같은 기간 중 6.1퍼센트 느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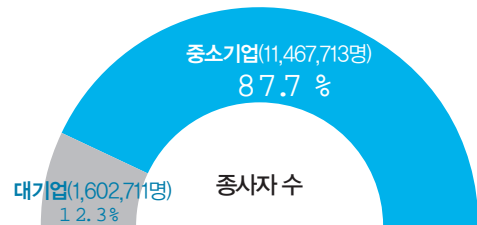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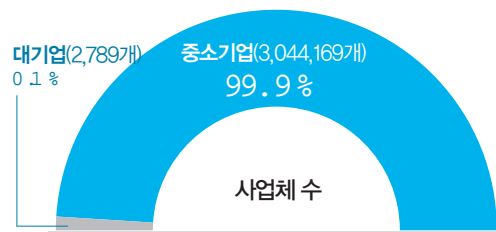
또 대기업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생산이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 생산지수를 회복한 시기도 대기업은 2009년 3분기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올해 2분기였다. 전 산업 종사자의 87.7퍼센트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대기업에 비해 그만큼 느린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초 5백62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차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내수 위주 업종의 회복세가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정보기술 분야의 수출 증가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공업과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온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꾀하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와 경쟁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경우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평균 8퍼센트대로 비슷하며, 미국은 대기업 9퍼센트, 중소기업 7퍼센트대였다. 한국은 대기업은 7퍼센트, 중소기업은 4퍼센트대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 임금 수준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의 중소기업은 70~80퍼센트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50~6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힌 이후 대기업들의 상생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전 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업체·종사자 비교

조달청이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꾀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정부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생 경제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변질되는 것을 이 대통령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되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가 되길 희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발전이 지체되어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발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을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의 손 내밀다

이젠 상생 경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양극화되자 대기업들이 상생을 거들고 나섰다. 협력업체들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과 인력, 경영에 대한 자문과 교육에 동참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STX엔진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생산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더딘 체감경기 회복에 가장 효과가 나는 처방은 자금 지원일 것이다. 중소기업청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면 매년 수위를 다투는 부분이 자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줄에 목마른 중소기업의 갈증을 채워줄 '상생펀드'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이후 LG그룹이 가장 먼저 상생펀드 조성을 포함한 상생경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파격적인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소식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과 은행권의 상생펀드 붐이 이어지고 있다.

SAMSUNG 1조원 상생펀드 조성

삼성전자는 8월 16일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을 포함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과거의 상생활동이 1차 협력업체 위주에서 이뤄지던 관행에서 벗어나 2, 3차 협력업체로 지원을 크게 확대해 '상생의 울타리'를 넓혔다는 점이다.

지난 6월부터 '상생 관련 경영진단'을 실시해온 삼성전자는 80여 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청취한 애로사항과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실천방안을 수립했다.

이 실천방안은 ▲2, 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 ▲원자재를 구매

동아DB

SK그룹의 중소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8월 25일 열린 '상생 CEO 세미나'. 이호욱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해 제공하는 사급(社給)제도 도입 ▲2, 3차 협력업체 대상 지원 ▲우수 협력업체의 글로벌 기업 육성(2015년까지 50개사) ▲신규 협력업체들에 대한 문호 확대 ▲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구직 지원 등이다.

2004년 국내 최초로 임원 단위의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두어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체계화해온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함으로써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이끌었다. 또 2008년 '상생협력실'을 설치해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실천방안을 발표한 박종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은 "최근 상생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그간 삼성전자의 상생활동을 기본부터 점검해보고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이번에 수립된 7가지 실천방안이 중소기업과 진정한 상생으로 가는 효과적인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 본격 추진

이에 앞서 8월 12일 LG그룹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를 대상으로 2천5백억원 규모의 'LG상생협력펀드'를 신설해 앞으로 연간 7천4백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그룹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LG의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는 ▲우수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 그린 신사업 분야 차세대 공동 기술개발 ▲2, 3차 협력업체까지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및 결제조건의 획기적 개선 ▲협력업체를 통한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 확대 ▲인재 개발 등 협력업체의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 지원 ▲협력업체 요청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상생고(相生鼓) 신설 등이다.

LG상생협력펀드는 LG 계열사들이 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치하면 기업은행이 1천5백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총 2천5백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기업은행은 이 자금을 LG의 1, 2, 3차 협력업체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LG그룹 관계자는 이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네트워크론' '패밀리론' 등 3천7백억원, 그리고 기타 자금 지원 등과 함께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상생협력펀드 2천5백억원까지 협력업체들에게 연간 총 7천4백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LG는 그동안 협력업체들에 대해 현금과 전자어음을 혼용한 '현금성 결제'로 대금 지급을 해왔으나 향후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부터 1백 퍼센트 현금결제로 확대하고, 대금 지급 횟수도 월 최대 6회까지 늘려 협력업체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계획이다.

posco 협력기금 지원 등 상생 프로젝트 가동

포스코의 상생 프로젝트도 이미 가동 중이다. 포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더딘 체감경기 회복에 가장 효과가 나는 처방이 자금 지원이다. LG그룹이 상생펀드 조성을 포함한 상생경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과 은행권의 상생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의 12개 계열사는 8월 18일 업계 처음으로 1만5천1백50개 1~4차 협력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기금으로 모두 1조7천5백6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상생협약에는 1차 협력업체(2백98개사)가 2, 3차 협력업체(1만1천7백83개사)와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를 지렛대로 삼아 2~4차 업체에까지 상생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상생협약은 포스코가 1차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인상계약을 맺을 경우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서 납품받는 단가도 역시 인상하도록 명시했다. 또 월 8회 대금 지급 등 결제조건 개선과 '테크노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대기업들의 상생펀드 조성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2조3천억원의 자체 특별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GS건설과 함께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에 최대 4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GS건설이 하나은행의 상생협력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GS건설의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tx 협력업체 통합 관리와 정보 제공

당장 숨통을 틔워주는 자금 지원만이 상생은 아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상생방안들도 마련되고 있다.

STX그룹은 협력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7월 STX 협력업체 대표와 R&D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술개발 필요품목 설명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건조에 필요한 신규 아이템과 향후 시장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STX는 흔히 계열사별로 따로 운영하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한 'STX 멤버스' 프로그램을 그룹 출범 때부터 운영하며 협력업체들과 다양한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

STX는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를 협력업체들에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우수한 협력업체 실무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자금 지원만이 상생은 아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상생방안들도 마련되고 있다. STX그룹의 협력업체 경영 지원과 KT의 '3불(不)', SK그룹의 협력업체 대상 '상생 CEO 세미나'도 그러한 상생의 방법들이다.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STX조선해양은 지난 4월 경남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4백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낮은 이자에 장기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STX조선해양은 또 중국 다롄에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10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자본금 7억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STX 다롄 생산기지 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펼치고 있다.

olleh kt 상생 전담조직 편성으로 동반성장

KT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다짐하는 '3불(不)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신설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7월 12일 서울 광화문 본사 올레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를 전담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담조직은 사업제안, 사업화, 구매 등 단계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해 중소 협력업체, 개발자들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KT가 이날 선언한 3불정책은 태생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설령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원이 KT로 말미암아 낭비되지 않게 하고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선언 및 해당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과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터를 닦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개방정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열어가는 데 KT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기자

8월 2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시창업지원센터에서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등 8개사 사업·구매자가 참가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프로젝트'로 기획된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SK 세미나 통해 중소업체 경영역량 제고

SK그룹은 각 계열사의 중소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상생 CEO 세미나'의 올 하반기 과정을 8월 25일 시작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SK그린빌딩 20층 상생아카데미 전문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SK그룹이 2006년 시작한 협력업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SK 상생아카데미'의 일부다. 5개월간 매월 1회 조찬세미나 형태로 열리는 SK그룹 중소 협력업체 CEO들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국내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경영전략, 마케팅, 리더십,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7년 첫 과정이 열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천3백35명의 CEO가 수료했다.

SK 상생아카데미는 "일회성 상생 프로그램보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최태원 회장의 지론에 따라 문을 열었다. 이 아카데미는 상생 CEO 세미나 외에 협력사 핵심 부·차장을 대상으로 한 '상생 MDP(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온라인 교육과정인 '상생 e-러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상생 MDP는 경영전략, 재무, 회계, 마케팅 등을 교육하는 '미니 MBA' 형태로 운영된다. 상생 MDP과정은 지난 5년 동안 1천8백명이 수료했고, 온라인 과정은 9만8천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이 학습에 참여했다. 이들 3개 전 과정을 합치면 10만명을 웃도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한 셈이다.

SK는 상생아카데미 수강을 희망하는 협력사 임직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강의 시간과 교육 인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SK아카데미의 장종태 리더십센터장은 "(중소기업에)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믿음에서 공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펀드거나, 상생협력이거나,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질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그들은 상생의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기술력… 상품 경쟁력… 인력개발…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 이끈다

국가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살아났음에도 서민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 인력, 판로개척 능력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경기 군포시 당정공업지역에 자리한 세화전자. 1987년 설립돼 휴대전화기용 터치윈도 패널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백50여 명의 직원을 둔 LG전자 협력업체다.

2007년 가을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을 터치스크린 타입 윈도에 응용 접목해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2억8천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상생 파트너인 LG전자도 샘플 테스트와 자재 제공 등에 9천만원을 지원했다. 세화전자에서는 총 7명이 개발인력으로 투입돼 7천9백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4억5천1백만원으로 그해 12월부터 1년여간 '4선 저항막 방식 터치윈도' 개발에 매달려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세화전자 홍승관 이사는 "그 덕에 월평균 제품 생산량이 크게 늘어 연 매출이 1백8퍼센트 상승하고 1백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2 8월 25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닭한마리 전문 음식점 '골짝마을'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능장·명장교육'이 진행됐다. 기능장·명장교육은 해당 분야에서 최상급 숙련기술을 가진 명장과 기능장이 소상공인의 점포를 찾아가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날의 조리기능장은 김성옥 동원대 교수였다.

김 교수는 계절을 타지 않는 경쟁력 있는 닭요리 메뉴로 찜닭, 닭볶음탕 등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조리기술을 직접 선보였다. 골짝마을 주인 최안임 씨는 "닭한마리로는 경쟁력이 없어 고민했는데 요리기술뿐 아니라 레시피까지 전해주고 좀 더 호감 가는 상호도 지어줘서 무척 고마웠다"며 흡족해했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혁신 개발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등 지원책의 종류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을 테마별로 추렸다.

"혁신기술 개발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글로벌 투자과제, 미래 선도과제, 창업 실용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미래 선도과제 지원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고부가가치 틈새 분야에 집중한 점이다. 올해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4천4백23개사이며 이 중 1천4백3개사에 2천6백97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과 요식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의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 1357 www.smtech.go.kr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 개척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

경기 안산시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신창전기 직원들이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에서 3위권으로 진입하겠다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업 간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이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숙박업과 요식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의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1백2개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원 규모는 6백억원이다.

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 1357 www.smtech.go.kr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원자재 투입과 출고, 제품 재고를 비롯해 생산실적, 품질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산공정에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기업 3백66개사 중 1백44개사에 80억원을 지원했다.

생산 및 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산설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화 경영체계(IMS)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벤처 인증기업 등은 우대한다.

비즈인포 ☎ 1357 www.bizinfo.go.kr

"꼭 필요한 맞춤형 인재 찾아드려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이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과 연계해 기업 수요에 알맞은 인력을 양성해 최소 2년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

대학 졸업자 2천2백명이다.

다른 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채용이 확정된 사람, 재학생, 휴학생,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지만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예외다.

맞춤형 인력양성 www.idt.smba.go.kr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8903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 등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발한 미취업자로 규모는 3천명에 달한다.

이들 개개인에게는 2, 3개월 동안 집합교육수당으로 20만원, 1~3개월간은 기업현장 연수수당 5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채용 패키지 www.job.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0~3385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전국 63개 4년제 이공계 대학에서 이공계열 또는 공예·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기 중에는 성공한 중소기업 전문경영인의 강좌를 청취하고, 방학기간에는 중소기업에서 3주간 현장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 대학생에게는 현장연수비로 1인당 40만원과 2학점 이상을 지원한다.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606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돕는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우리나라에는 현재 1백96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8월 25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음식점 '골짝마을'에서 조리기능장인 김성옥 동원대 교수(왼쪽)가 주인 최안임 씨에게 닭요리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일 경우 중소기업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를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일정한 납품가격 이상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달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한 입찰 7천8백여 건에 4천5백억원이 지원됐다. 신인도 평가 등 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입찰공고일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1357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우수 소프트웨어(GS),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과 조달청의 우수 조달제품,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EPC)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2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은 2008년 1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 1천억원으로 늘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준비·업종전환 등 경영개선 해결"

자영업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을 전문가가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주류도매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는 전체 예산 35억원 범위 내에서 연간 5천 개사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4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테마거리 조성,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해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2백59개 시장에 1천5백72억원을 지원한다. 각 시장당 평균 6억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G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6, 4574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박순옥 씨.
새벽에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활기에 넘친다.

가점받는 정부인증제도

벤처기업 확인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에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 혜택 부여

신청 및 접수 벤처인(www.venturein.or.kr)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5, 1357

이노비즈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신청 및 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5, 1357

메인비즈 제도

경영혁신 활동 우수기업에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 지원 등 혜택 부여

신청 및 접수 메인비즈(www.mainbiz.go.kr)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5, 1357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 보증, 해외마케팅 지원 시 우대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 해외시장과 ☎ 042-481-4467,
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저금리 사업자금 대출받으세요"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믿고 쓸 수 있는 자금대책 마련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영세 소상공인은 나들가게 지원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미소금융중앙재단

◀ 초콜릿 가공 식품회사 아우레이트의 조익길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 대전 도마큰시장은 미소금융 대출을 잘 활용해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추가로 1억원을 지원받았다. 왼쪽부터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염홍철 대전시장, 시장 상인들.

#1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초콜릿 가공 식품회사 아우레이트의 조익길 대표는 새로 지은 공장을 둘러볼 때면 감회가 새롭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있던 2008년 9월 이웃 공장에서 시작된 화마는 조 대표의 공장과 생산설비를 모두 삼켜버렸다. 화재로 입은 손해는 초콜릿 수입 원재료를 포함해 25억원. 화재보험료 7억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손해였다.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준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4억원이었다. 조 대표는 "복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었다"고 말했다. 거래 업체들은 결제기일을 미뤄주고 외상으로 원료를 대줬다. 공장을 새로 지은 뒤 수출 1백만 달러를 달성했고,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조 대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입은 사랑을 갚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2 요즘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큰시장 상인들 사이에 웃음꽃이 피었다. 급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미소금융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 대신 연리 4.5퍼센트의 미소금융은 상인들에겐 든든한 도우미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부터 이 시장 상인회에 2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덕분에 올해 8월 20일 현재 이곳 상인 2백20명 중 1백60명이 총 2백7건, 7억4천4백50만원(1인당 약 4백65만원)의 미소금융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낮으니 상인들은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자금 회전율도 높다. 이처럼 실적이 좋자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8월 25일 도마큰시장을 방문해 지원금 1억원을 추가로 내놨다.

손중달 도마큰시장 상인회장은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어도 믿고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사채는 물론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아서 환영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초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사례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미소금융을 각기 대출받은 경우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자금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과정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최고 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5억원까지 연 3.71~4.08퍼센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2008년 3조1천5백억원에서 2009년 5조8천5백억원으로 85.7퍼센트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나들가게(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영세 중소 가게를 개조한 현대식 점포) 육성자금, 경쟁력 제고사업 우선지원자금, 동절기 지원자금 등으로 총 3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10인 미만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출금리는 연 4.08퍼센트.

영세 소상공인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가 지원

지난 6월부터는 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최근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거나 성장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5천만원까지 연 5, 6퍼센트로 대출해준다.

영세 소상공인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활용해볼 만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소금융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 희망자나 사업 운영자에게 연 4.5퍼센트로 5백만~5천만원을 무담보로 빌려준다.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한 햇살론은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에게 사업자금 2천만원까지, 1년 이내 창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상호금융 10.6퍼센트, 저축은행 13.1퍼센트 선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햇살론으로 대출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서민 1백만명이 총 10조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초부터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원(시군구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10인 이하(중소기업지원법이 정한 기타 업종)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이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타 업종)다.

2008년 기준으로 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소기업은 2백93만9천6백96개, 소상공인은 2백67만5천2백70명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 지원

* 운용 금융기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	자격	한도	금리(연/최고)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연 30억원 (운전 5억원)	3.7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정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연 20억원 (운전 5억원)	3.71%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협동화 및 협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등	연 30억원 (운전 5억원)	4.08%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필요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 중소기업	연 5억원 (수출 10억원)	4.08%
사업전환지원자금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	연 30억원 (운전 5억원)	3.71%
나들가게 특례보증	3백 제곱미터 이하 나들가게 지원 대상 소상공인	1억원	4.5%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 특례보증	최근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증가기업, 성장산업 기업	5천만원	5~6%
미소금융	신용 7등급 이하 창업 희망자, 운영자	5천만원	4.5%
햇살론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	창업 5천만원 (운영 2천만원)	10.6%(상호금융) 13.1%(저축은행)

● 정책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700 | ● 영세 소상공인 지원자금 : 소상공인진흥원 ☎ 042-363-7700
● 미소금융 :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 ● 햇살론 : 각 상호금융, 저축은행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4

"손만 뻗으면…"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이용 가능

중소기업이나 소점포를 창업하려면 자금, 인력, 기술, 경영정보 등 보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점포 창업 과정에서 고비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되는 정부의 창업 지원책을 소개한다.

위자드웍스, 루비콘게임즈를 창업한 표철민 대표(사진 한가운데)는 창업보육센터, 정책자금 등 정부의 창업 지원책을 실속 있게 활용했다. 두 회사의 직원 중에는 청년인턴제 이후 고용된 경우도 많다.

"한국은 벤처 창업 지원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와주겠다는 곳을 찾아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됩니다."

국내 최대 위젯(시계,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미니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로 자리 잡은 위자드웍스를 이끌고 있는 표철민(25) 대표가 밝히는 성공 비결이다.

표 대표는 지난해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으로 선정한 유명인사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00년 도메인 등록대행 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봄 소셜 게임 개발회사인 루비콘게임즈까지 4개 회사를 창업했다. 그의 잇따른 창업과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각종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위한 '창업 인프라' 제공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회사를 발 벗고 도와준 경영컨설턴트였습니다. 위젯으로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한 2008년 초 중소기업청은 우리 아이템을 신기술사업화 평가사업의 우수 과제로 선정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백 쪽에 달하는 사업보고서까지 작성해줬습니다. 국내외의 관련 특허기술, 재무 등 고급 정보가 담긴 귀중한 보고서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년인턴제 덕분에 일손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표 대표는 요즘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았듯 햇병아

리 창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손만 뻗으면 지원해주는 곳이 많다"는 게 창업 11년차 베테랑인 그의 조언이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라!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한다. 한번은 아이디어를 실용 기술로 만들어 창업하기까지, 두 번째는 제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은 벤처 창업 실패 조사연구를 통해 죽음의 계곡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첫 번째 고비에서 무려 96.5퍼센트, 두 번째 고비에서 37~54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상권분석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위자드웍스 표철민 대표의 경우처럼 자본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려고 할 경우 정부와 관계기관의 도움을 찾아 나선다면 손을 잡아줄 곳은 많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창업의 산실 '창업보육센터'도 지원

먼저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으로 갓 숙성시키려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및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자금 조달, 마케팅까지 도와준다. 중소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해주는 '창업컨설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들에겐 창업의 산실로 소문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사무공간을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제공하며 기술, 경영, 세무, 자금 등을 직접 지원해주거나 외부 기관과 연결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준다. 현재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2백79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서비스'를 활용해볼 만하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1인 중심의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분야, 만화와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분야, 전통식품과 공예품 등 제조업 분야를 망라한다.

1인 창조기업으로 지정되면 전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8곳에 입주할 수 있으며 IT개발, 디자인, 번역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총 비용의 10퍼센트를 지원하는 구매바우처가 나온다. 우수 1인 창조기업의 경우 1인당 80만원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반값에 수강할 수 있는 자기계발 골드카드를 지원받는다.

소점포를 창업하려는 경우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을 받는 것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경영기법, 인사관리, 마케팅까지 맞춤형 교육을 한다. 실제로 2006~2008년 이 교육을 받고 창업한 경우 폐업률(5.3퍼센트)이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폐업률(77.1퍼센트)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장에 갈 수 없을 경우 '소상공인 e-러닝센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창업 및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다. e-러닝 교육에서는 업종분석, 아이템 선정, 고객관리 등을 상세히 다뤄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다.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과정을 수강한 4천1백91명 중 84.2퍼센트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목이 좋은 가게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국 6백 개 상권정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상권정보시스템은 8월 19일부터 상권 내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도 별도로 구축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중소기업청 www.smba.go.kr
비즈인포(중소기업 종합지원) www.bizinfo.go.kr
중소기업 컨설팅 www.smbacon.go.kr
창업보육센터 www.bi.go.kr
아이디어비즈뱅크(1인 창조기업) www.ideabiz.or.kr
소상공인진흥원 www.sbdc.or.kr
소상공인 e-러닝센터 edu.sosang.kr
상권정보시스템 sg.smba.go.kr

기술·지식·IT 응용 등 3대 유망 분야

청년 창업자 3만명 양성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창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창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기술, 지식, 정보기술(IT) 응용 등 3대 유망 분야에서 3만명의 청년 창업자를 양성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력 및 자금 투자, 상품화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대책의 골자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8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우선 기술, 지식, 정보기술(IT) 응용 등 3대 유망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2년까지 3만명의 청년 창업자를 키워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창업 지원은 분야별 전문기관이 나누어 지원한다. 기술창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창업은 지방자치단체가, IT 응용 창업은 관련 기업들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은 올해 7백69억원, 내년에는 7백88억원이 투입된다.

조영철 기자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은 도전정신을 길러준다. 지난해 서울시의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들.

중기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담은 지갑을 카드 인식기에 갖다 대면 오류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 교통카드 중복인식 방지 필름'을 개발하고 있는 정무학(25) 씨의 사례를 기술창업 지원의 유형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청년창업 촉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녹색기술 기반한 청년창업 촉진 프로그램 도입

전통공예나 패션 등을 중점 분야로 하는 지식창업 지원사업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창업 모델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 3백39억원이 지원된다.

IT 응용 창업은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드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 11곳과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2012년까지 청년 앱 개발자 1만명을 양성한다. IPTV(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등 IT 응용기술이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해 제품 디자인과 방송·교육용 콘텐츠 등 '1인 창업'이 쉬운 신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창업 지원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9일 서울 마포구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창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한 후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창업 투자 활성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천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업자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시험 설비를 빌려 쓰는 비용을 지원하고 시제품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기청은 모태펀드 출자금 90억원 등 1백50억원 규모의 이른바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 완화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 등 분야의 창업자들에게 기술보증을 지원할 때 업주의 연대보증 범위를 축소하는 등 채무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1백50억원 펀드 조성… 청년 창업자 투자 유도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재기를 돕는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간이회생제도' 도입이나 압류재산 면제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의의 부도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까지 2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준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키로 하는 등 청년 창업자의 도전정신을 높여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G

글 · 안희(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강북청년창업센터 비상경제대책회의

"청년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9일 "청년 창업자가 중도에 자금 등이 부족해서 잘못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창업이 적은 것은)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초에는 30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했지만, 근래는 40대 후반에서 50대의 창업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면서 "청년들이 위험한 도전을 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희망도 없는 곳에 (무모하게) 달려들어 실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도전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국의 미래가 상당부분 젊은이들의 창업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민과 관이 열심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 · 안용수(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계시장에 우뚝

역발상·도전정신·기술력으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들

강소(强小)기업은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또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다.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 대열에 합류한 유통·물류 벤처기업 유한D&S,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자동제세동기를 개발한 씨유메디칼시스템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뚝 선 강소기업이다.

유한D&S _ 발상의 전환으로 블루오션 개척

유통 불모지 제주도에서 창립 7년 만에 연매출 1백억원이 넘는 도매유통 및 물류 회사로 성장한 유한D&S의 성공 뒤에는 이순섭(50) 사장의 역발상이 숨어 있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지만 물류에서는 산간 도서로 분류돼 물건을 보내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또 24시간 배송시대지만 제주도는 예외였다. 유한킴벌리에서 영업본부장을 지낸 이 사장은 여기에 착안해 기회를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배를 이용하면 느려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착도 없고 안전하며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배야말로 최적의 운송수단입니다."

유한D&S는 선박 운송을 근간으로 뭍에서 제주도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고객이 발주하면 서울의 판매처에서 육로를 통해 전남 완도나 진도 등 제주행 화물선이 뜨는 항만으로 오후 5시까지 물건이 들어온다. 배에 올린 화물은 다음 날 아침 7시에 제주항에 도착한다. 이 회사 직원들은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해 배송차량에 싣고, 아무리 멀어도 오전 11시까지는 배송을 완료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유한D&S는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네슬레코리아 등 대형 생활용품 기업의 제주도내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유한D&S는 '사회적 기여'라는 기업 의무에도

유한D&S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 되기.' 틈새에서 기회를 찾은 유한D&S의 전략적 목표다. 전원 정규직인 직원들은 매출 1천억원의 회사를 위해 함께할 사람들이다.

충실하다.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된 요즘 이 회사는 70명 전 직원이 모두 정규직이다.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유통사업에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예비조를 운영해 직원들이 돌아가며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이뤄져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게 이 사장의 믿음이다.

"똑똑한 사람이 항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성과는 대접받는 사람이 냅니다. 저는 직원들을 통해 보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한D&S는 유통, 가공, 제조, 물류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던 이전의 유통과 달리 원재료를 가공해 전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산 의류를 유통할 때 기본적인 형태로 수입된 제품을 단추 등 액세서리를 달고 다림질을 해서 백화점 등 매장에 납품하는 것이다.

또 현재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다. 외국에서 제주항으로 들어온 물건을 기존 프로세스를 역으로 활용해 육지로 배송하는 것이다.

남들은 제주도이기에 안 된다고 했지만 제주도이기에 가능하다고 본 유한D&S의 역발상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씨유메디칼시스템_기술력으로 세계시장 석권

심장질환에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심장은 5분만 뛰지 않아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이다.

우리나라에도 공공장소와 사업장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음성지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들 제품은 씨유메디칼시스템이 개발한 것이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은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6번째로 자동제세동기를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기술력 하나로 세계 9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백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2001년 창업하기 전 20년간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명을 지키는 보람된 일을 하겠다며 의료기기산업에 투신한 엔지니어의 꿈이 세계에서 다섯 나라만 보유하고 있던 첨단의료기기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냈다.

일해온 나학록(47) 사장이 제세동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장비라는 점과 국산 장비가 없음에도 누구도 국산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자금,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기술력 하나로 극복했다. 자동제세동기 'CU-ER1'은 2007년 일본 후생성(JFDA)의 승인을 받았고, 2008년에는 보급형 자동제세동기 'i-PAD'가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유럽연합(EU)의 품질인증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도 7개나 된다.

이 회사는 자동제세동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 시장구조, 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씨유메디컬시스템은 앞으로 더 간편하고 다양한 제품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심장질환자들이 휴대할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정보기술(IT)과 접목해 공공장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다.

나 사장은 "의료기기는 첨단 기술 분야지만 핵심은 사람"이라며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사장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 실천으로 2004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었다. 또 기숙사, 통근버스, 학비 지원, 해외 연수, 무료 식당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사장은 '다 함께 잘 먹고 잘살자'는 말을 자주 한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을 통해 직원, 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강원 원주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라는 그의 경영철학을 담은 것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유한D&S ☎ 064-757-0114
씨유메디칼시스템 ☎ 031-421-9700 www.cu911.com

'노사 쌍끌이' 회사 경쟁력 키운다

노사발전재단 선정 2010 노사문화 우수기업 2곳

노사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 노사 화합은 물론 기업 재도약의 길을 열었다.
노사발전재단이 선정한 201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 두 곳을 찾았다.

퍼시스_ '우리 함께 칭찬합시다' 노사 간 사기 충전

"작은 실적이라도 칭찬하고 포상합니다." 사무가구 전문 생산업체 퍼시스는 직원과 팀의 공로를 하나라도 잊지 않고 포상하는 '스마트 퍼시스인(人)' '스마트 퍼시스팀' 선발대회를 통해 직원 참여 중심의 노사화합을 추구한다. 사측은 근로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협력을 꾀하는 한편 우수 사원과 팀을 선정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다. '업무능률'과 '열린 노사문화'를 두 바퀴로 함께 굴리는 것이다.

특히 1983년 창사 이래 단 한 번의 구조조정도 하지 않은 것은 퍼시스의 최고 자랑거리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유도하며 노사 상생의 길을 걸어온 덕분이다. 이에 힘입어 퍼시스는 현재 사무가구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53퍼센트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진이 수렴할 때는 언제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또 탁상공론식 회의를 지양하고 교육이나 각종 포상제도에 비용을 들인다. 신제품의 이름 하나라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짓는다. 직원의 외부 인력 추천제, 작업방식 개선방안 공모제 등도 수시로 실시한다. 사내게시판을 통해 업무 관련 돌발퀴즈를 열어 '아이리포트 퀴즈'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리포트나 프레젠테이션(PT) 경연대회 등도 마련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퍼시스 직원들이 모여 신제품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고 있다.

퍼시스 경영기획팀 한민석 대리는 "작은 이벤트라도 항상 최고경영자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직접 직원들이 최고경영자와 몸으로 부대끼다 보니 참여도가 덩달아 높아진다"며 "가구 부품을 생산할 때도 각종 공모전을 연다"고 말했다.

참여문화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노사 간 공식 회의와 더불어 비공식 자유회의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경영진은 "노사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인재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인재가 만들어낼 성과다. 임직원 간 소통이 최우선이다"라는 기치 아래 직원을 위한 소통 여건을 만들어간다.

직원 개개인이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백12명의 직원에게 2억2천만원(총임금 대비 2.4퍼센트)의 교육비를 사용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밑거름으로 직원들의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지난 1월부터 출산장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출산 축하금 2백만원, 초등학교 입학금 1백만원,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초보 엄마 아빠상' 제도도 시행해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는 유아용품을 제

공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원에게는 '초보 학부모상'이 수여된다. 최근에는 '우리 엄마 아빠 직장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원 가족들이 직장을 방문하는 '직원 가족 초청 투어'를 열어 가족들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민석 대리는 "최근 평일에 초청 투어를 시행했는데, 주말이 아니라서 참여하기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서른 가족이 참여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도 쾌적한 근무환경은 중요하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자리한 지상 10층, 지하 4층 퍼시스 사옥에서는 4, 5층 전체가 직원 휴식공간으로 쓰인다.

지난해 퍼시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연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준)에 유한양행, 메가스터디 등과 함께 선정된 바 있다. 30여 년 동안 노사 간 소통과 존중을 최우선의 모토로 내건 결과다.

8월 25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신한일전기 생산라인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신한일전기_ 노사 상생을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최선 다해

경기 부천시의 전기제품 제조업체 신한일전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기'로 자체 선포한 뒤, 노사 모두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일전기는 회사 안팎에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벌여 노사 상생의 모범 기업으로 거듭난 회사지만, 1968년 창사 이후 90년대 후반까지는 사측 주도의 근로환경에 직원들이 순응하는 '소극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노무정책으로 선회했다. 최근 2년 동안 노사가 합심해 공장 개선에 매진했고, 노사월례회의를 통한 근로자 의견이 작업장에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에 힘쓰고 있다.

신한일전기 총무팀 문병철 과장은 "노사월례회의는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경영자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2년을 이어왔다"며 "이러한 기업문화가 회사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일전기의 연매출액은 현재 8백억원가량이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일전기는 또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로도 유명하다. 비정규직을 지양하고 전 사원을 정규직화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연 10억원가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해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도 해준다. 또 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최근의 화두인 보육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가고 있다.

사내 이벤트나 문화활동도 노사 상생 문화를 꽃피우는 밑거름이다. 신한일전기는 체조교실, 요가교실, 금연클리닉 같은 건강 강좌는 물론 친목 도모를 위한 족구대회, 단체줄넘기 대회 등도 꾸준히 열고 있다.

경영진은 '열린 경영을 기반으로 한 경영성과 달성, 노사협력 인프라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모토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일성장학재단 설립, 홀몸노인을 위한 김장 봉사, 불우이웃 돕기 일일주점, 새소망보육원 결연사업 등 노사가 함께 어울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며 복지와 사회 교류에 힘쓴 덕에 신한일전기는 최근 3년간 이직률이 전 직원 3백80여 명 중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문병철 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2003년부터 보육시설을 갖추고 동종 기업에 비해 사원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직원들의 충성도와 애사심을 높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

글·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좌절 문턱서 모범 소상공인으로

"차별화·연구·창업교육 덕분이죠"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도 차별화된 운영방식과 서비스로 불황을 극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모범'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을 살폈다.

김미선 서울 송파구 '치킨퐁' 대표

"정부 창업교육 받고 희망 키워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남편과 함께 오븐구이 치킨 체인점 '치킨퐁'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선(41) 씨.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그는 해수욕장에서 민박과 식당, 그리고 온갖 잡다한 생필품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해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여름에만 반짝 피서객이 몰리는 한철 장사로는 김 씨 부부와 중학생,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인 세 자녀까지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버거웠다.

무엇보다 매달 안정된 수입이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창업 아이템을 찾는 데만 2년여를 투자한 그는 인터넷을 뒤지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킨·호프 전문점 창업 교육과정'을 알게 돼 지난해 9월부터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8월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오븐구이 치킨 체인점 '치킨퐁' 앞에서 주인 김미선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가게를 내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인 창업 대신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렸지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물류를 지원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가르쳐줘서 초기 정착이 한결 수월하니까요."

이후 시장조사 등 창업 준비에 공을 들인 그는 지난해 12월 오븐구이 치킨을 주 메뉴로 하는 치킨퐁을 집 근처에 열었다. 프라이드치킨에 비해 기름기가 적어 '참살이(웰빙)'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매장을 자신의 오랜 거주 지역에 둔 것도 단골 고객 확보가 쉽다는 나름의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초창기 매장을 열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줬어요.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신규 고객도 많이 확보했고요. 하지만 치킨퐁만의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오븐기와 냉각테이블로 조리한 감칠맛 나는 치킨 맛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주변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한 전단지 홍보, 10회를 이용하면 치킨 한 마리를 공짜로 주는 상시 이벤트, 매장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안락한 인테리어도 한몫했다. 특히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맛과 메뉴 연구가 주효했다.

"체인점이라고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발전이 없거든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맛과 품질을 높이고 신선한 메뉴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해요.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가족창업이 딱 알맞아요. 저도 남편과 함께 운영하니 불필요한 지출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가사와 육아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박상희 인천 남동구 '아딸 만수2호점' 대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단순히 손님을 대하는 친절이 아니라 가족 같은 친근함이 담겨 있어요. 힘들 텐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인천 남동구에 자리한 분식 체인점 '아딸 만수2호점'을 찾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곳의 성공 비결로 '친절'과 '밝은 미소'를 꼽는다. 이곳은 지난 6월 전국 6백50개 아딸 가맹점 가운데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지점 매니저의 추천과 고객만족도, 매출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두 곳을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뽑힌 거예요. 모두가 옆에서 늘 큰 힘이 돼주는 엄마와 동생 덕분이에요. 처음에 창업을 권한 것도 동생이고요."

자그마한 얼굴에 부드럽고 해맑은 미소, 상냥하고 싹싹한 말투. 이곳의 대표인 박상희(29) 씨의 첫인상은 '억척녀'라는 별명과는 딴판이었다. 하지만 엄마와 동생, 손님들까지 "못 말리는 억척녀"라며 박 씨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제가 좀 억척스러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7년여 동안 일할 때도 악바리 근성 덕에 인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형편도 넉넉지 않는데 겁 없이 창업한 것도 악착같은 기질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박 씨가 창업을 결심한 것은 2008년 8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두 딸을 뒷바라지해온 엄마와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한 동생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품고 살아온 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7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정한 창업 아이템은 계절을 타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떡볶이였다. 떡볶이 체인점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성공하고 말리라는 오기가 발동했다.

"수중에 있는 넉넉지 않은 창업 자금에 맞추려고 처음에는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가 싼 상가를 찾는 데만 집중했어요. 임대 계약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알게 됐는데 만일 그때 그곳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찾아간 인천 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계약을 보류하라며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했다. 위치 선정의 중요성과 유동인구의 흐름,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체인점 계약서 쓰는 법 등을 발로 뛰며 공부한 뒤에야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센터에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알게 됐다.

"센터에서는 대출 외에도 법률구조, 자영업 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인천 남동구에서 떡볶이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박상희 씨와 어머니 이순옥 씨, 여동생 박수진 씨(오른쪽부터).

상권 정보 제공과 분석, 사후 관리까지 예비창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더군요. 어렵게 시작한 날갯짓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준 센터에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가게를 차린 뒤 박 씨는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며 홍보하기 시작했다. 온 동네에 떡볶이를 돌리고 시식회도 열었다. 주 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어 당첨의 기쁨도 안겨줬다.

고객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모두 듣고자 다소곳이 놓아둔 '고객의 소리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월드컵 기념선물인 막대풍선, 새벽같이 일어나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막대사탕까지 매장 곳곳에서는 박 씨의 열정과 에너지가 묻어났다.

"장사하면서 힘들 때면 가족끼리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투덜거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질 않아요. 일할 때 손발도 착착 맞고요. 저와 함께 지금까지 매장을 운영해온 엄마와 동생이야말로 저에겐 둘도 없는 후원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창업으로 자신의 미래 개척하는 청년 CEO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꿈’ 인증 샷

청년실업이 국가·사회적 난제라고는 하지만 창업으로 자신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워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그중엔 정보기술(IT)과 생활 편의를 적절히 배합한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경우도 많다. 창의력과 도전정신, 젊은이다운 패기로 무장해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청년창업가들을 만났다.

김경민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기업 S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김경민 올웨이즈 대표

기업 SMS 개발…“트위터 기반, 사내 소통”

“많은 기업들이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섣부른 말씀인지 모르지만…. 기업 구성원들 간에 말도 생각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해낸 기술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트위터 개념을 기업에 적용한 ‘기업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개발한 ‘올웨이즈’의 김경민(27) 대표. 그는 “우리네 기업환경이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인트라망(網)의 진화라고 할까. 그가 개발한 기업 SMS는 트위터를 기업체 내부의 소셜 네트워크로 전환한 것이다.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유용하다. 간단한 회의나 업무 협의도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국내 초유의 또 다른 소셜 미디어 기술이다. 원하는 기업들은 해당 사이트(www.quik.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SMS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기도 한다.

기업 SMS가 개발된 것은 지난 4월이다. 그로부터 4개월여 지난 지금은 무려 5백여 기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나 팀들의 반응이 좋다”고 했다.

원래 그는 인터넷기업 ‘네오위즈’의 멘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1인 창업에 성공했다. 창업경진대회 등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각종 청년창업 프로젝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기업 SMS가 성가를 올리면서 최근엔 5명의 직원까지 들였다.

김 대표는 "평소 기업환경에 관심이 많다"며 일부 폐쇄적인 기업문화에 대해선 젊은이다운 일침도 가한다.

"발전적 변화에 무딘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일수록 환경 변화, 특히 소통으로만 이룰 수 있는 변화에 인색해 보입니다. 이는 제가 기업 SMS를 개발하게 된 동기이기도 해요. 기업이 발전하려면 각 부서나 팀의 내부 소통은 물론 사내 전체를 아우르는 실시간 대화와 마인드 공유가 중요합니다."

김 대표는 아직 학생 신분이다. 동국대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 중이다. 진로에 대해서도 또래 젊은이들과 생각이 다르다.

"맹목적 취업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꿈도 이룰 수 있지요."

민경국 한샘뭇씀 대표
"내 손 안의 민속극장 즐기세요"

사물놀이와 정보기술(IT)의 접목. 언뜻 보면 조화롭지 못한 조합이다. 그러나 그 둘이 스마트폰에서 하나가 돼 살아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인 창업을 한 '한샘뭇씀'의 민경국(33) 대표가 개발한 '모션 인식 디지털 사물놀이'가 좋은 예다.

디지털 사물놀이는 스마트폰 안의 민속극장이다. 화면을 통해 즉석에서 우리 전통 춤사위와 장단을 즐길 수 있다. "세계적 상품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물놀이를 세계인의 놀이로 만들고 싶다"는 게 민 대표의 개발 키워드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사물놀이를 개발했다. 이는 장차 국악교육 콘텐츠나 방과후 수업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 최근엔 시장의 반경과 쓰임새가 한층 넓어졌다. 무형문화재 하회별신탈놀이 이수자들로 구성된 디지털 사물놀이팀 '고타야'가 이미 구성됐고, 이를 공익 차원에서 활성화할 사회적기업도 머잖아 출범할 예정이다.

민 대표는 '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는 뜻의 '나목'으로 불리는 스마트폰 인공후두기도 개발했다. 이는 후두암 환자 등을 위한 목소리 재생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씨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후두기들의 음성 재현은 무척 부자연스럽다. 여성 목소리는 아예 낼 수도 없다. 이에 비해 인공후두기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성 목소리도 재현해낸다.

민 대표는 "비영리 목적으로 보급을 도와줄 기업이나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후두암 환자는 물론 후두 부위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등에서 8년여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살려 1인 창업에 도전한 민 대표는 업계에서 'IT의 달인'으로 통한다. 2년 전엔 '저온연소로켓연구소'를 차려 로켓시뮬레이터 게임을 개발했고, 이후 10여 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규모나 수익 면에서 대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알찬 IT기업을 일궈내는 것이 꿈입니다." G

글 · 박경만 객원기자

한샘뭇씀

지난 2년 동안 '모션 인식 디지털 사물놀이'(왼쪽) 등 10여 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한샘뭇씀'의 민경국 대표.

소상공인 성공 A to Z 비결은 '교육'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자립성 키우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영업자든 예비창업자든 그들에게 절실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과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은 여전히 거추장스러운 일이다. 그저 남의 사업이 잘되니까 그와 유사한 가게를 차리고, 한 아이템이 성공하면 일단 숟가락부터 올려놓는 게 현실이다.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겐 현상의 무조건적인 모방과 답습이 일종의 생존 방정식으로 각인돼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금 사정이나 경영능력 등의 한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자연히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본인 사업임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예비창업자나 기존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시간 없는 소상공인 위한 '인터넷 무료 창업교실' 마련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은 소상공인들 스스로 자립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방향으로 내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원칙을 현장에서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교육컨설팅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 ▲인터넷 교육 ▲무료로 교육장을 대여해주는 혁신아카데미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은 공통 교육(e-러닝) 10시간, 업종별 이론교육 20시간, 현장실습 30시간과 워크숍 10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 아이템을 찾고, 그에 맞는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업종 아이템은 영역별로 세분화된다. 김성근 교육컨설팅팀장은 "창업교육을 처음 시작한 2006년 당시엔 음식반, 도소매반 등 대분류로 교육생을 모집했지만 지난해부터 업종을 세분화했다"며 "음식업엔 커피전문점과 수타 자장 같은 업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남도음식 창업과정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아이템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앱스토어나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모바일 업종, 예쁜 글씨, 선물 포장, 설탕공예 등의 독특한 실전 창업 교육과정도 신설됐다.

현재 창업 아이템별로 전국에서 2백여 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7천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아이템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의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과정. 왼쪽은 설탕공예 창업 교육과정, 오른쪽은 꽃집 창업 교육과정.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 첨병인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직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종민 팀원, 이세희 팀원, 김성근 팀장, 김상호 대리, 정수진 팀원, 진혜영 팀원, 이희정 팀원, 안소란 팀원.

별로 창업 패키지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비용은 단 5만원. 돈을 받는 이유는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교육열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80시간 동안 교육생 한 명당 투입되는 부대 비용은 67만원. 결국 62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셈이다.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에서 눈에 띄는 과정은 10시간의 워크숍이다. 김 팀장은 여기서 예비창업자들이 스스로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워크숍 과정에선 교육생들로 하여금 동원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스스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사업타당성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기회죠. 투입 비용과 마케팅 방향도 모색하게끔 합니다.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6개월간 더 준비하려는 사람도 나오고, 원래 희망했던 업종을 바꾸기도 합니다."

교육컨설팅팀 김상호 대리도 "이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생각을 접는 경우도 있다"며 "무리한 창업 계획을 포기시키는 것도 창업 실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업교육 수료자에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개선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생들은 업종별 성공 사례, 친절서비스 등의 기초교육(1~3시간)과 성공업체 탐방 실습 등의 전문교육(20시간 내외)을 받는다. 시간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터넷 무료 창업교실'도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창업 분야는 36개, 경영 분야는 34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하는 과정만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로 이어진다. 창업교육 수료자에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전국 대도시 중심가(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최신 교육시설이 완비된 교육장을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임대해준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본래 단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업종별 단체 컨설팅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로드쇼'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컨설턴트들과 전국 중소 도시를 순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수료생 창업실태 점검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

김성근 팀장은 "상반기 12개 지역에서 컨설팅 활동을 벌였고, 오는 10월 이후 13개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단계에서 때로는 무리하게 창업을 서두르는 사업 희망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한다. 김상호 대리는 "확신과 준비 없이 덜컥 점포 계약을 해놓고 오픈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컨설팅을 받겠다고 오는 예비창업자들도 있다"며 "이런 경우엔 우선 관련 업종 교육을 받아보라고 유도한다"고 말했다.

연간 창업자 1백만명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창업, 경영개선 교육과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김성근 팀장은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만 장기 투자란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잘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 아닌가.' 김상호 대리는 가끔 일을 하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고 털어놓는다. 교육컨설팅팀의 존재 이유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 042-363-7761~5
www.seda.or.kr

"'경제 실핏줄' 유심히 들여다보길"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 인터뷰

중소기업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50인 이하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주들이 주체가 돼 출범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 상임부회장은 평소 '경제 실핏줄론'을 즐겨 말한다. 실핏줄은 몸속 기관 전체로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다. 이를 경제적 관점으로 적용해 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핏줄을 자세히 보려면 피부에 눈을 바짝 갖다 대야 한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앞으로 몸을 더 낮춰 '경제 실핏줄'을 유심히 들여다보길 기대했다.

정부는 '21세기는 소상공인의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 개발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특히 현 정부만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상공인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고 '희망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주 건의했던 문제들이 개선됐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만 봐도 그렇다. 지난 정부에선 전통시장의 카드수수료율이 4.8~6퍼센트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1.6~2.2퍼센트대까지 낮아졌다.

정월자 부회장은 정부가 몸을 낮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창업교육과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도 확산되고 있는데.

"창업 및 컨설팅 지원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모든 소상공인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나이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한다는데 그건 40대까지만 소화할 수 있다. 고령의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을 집합시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우후죽순처럼 비슷한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이 나열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8월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있나.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저리 대출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일부 시장번영회 등과 대부업체가 결탁해 저신용 상인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미소금융으로 갚으면 장사하는 자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으시더니 화를 내면서 '토착 비리'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제 실핏줄에 온기가 아직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높은 관심이 아래에까지 잘 소통돼야 온기를 느끼는 게 가능하다. 관계부처들이 내놓는 다양한 대책이 실제 소상공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용도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의 아우성을 항상 들어야 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장사 잘돼 어깨춤 절로 나올 수 있게"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인터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상인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상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전국상인연합회는 그래서 연일 비상이다. 최극렬 회장의 행보도 전국 지도에 갈 지(之)자를 그릴 정도로 바쁘다. 그런 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과 상인 살리기 노력은 단비와도 같다.

영세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이 클 것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기존 상권 및 골목 상권을 잠식한 데 있다고 본다. 대형마트 출점으로 전통시장의 기존 상권이 무너졌고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장해 골목 상권까지 초토화하고 있다. 관련 규제법안이 시급히 입법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기업윤리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SSM과 관련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상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공정한 환경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햇살론·미소금융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상인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각 제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금액 상향과 절차 간소화 문제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져다준 혜택이 아주 크다. 과거 정부 때부터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었는데 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제, 가맹점의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카드수납 의무 완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됐으면 한다.

소상공인·상인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연합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거시경제가 양호하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큰 효과가 있다. 정보화교육과 시장별 상인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통해 상거래 현대화,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 등을 상인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말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서민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소극적 투자와 어음결제 관행 등으로 자금회전이 안된다. 정부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줬으면 한다. 상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장사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상인들의 어깨에서 춤사위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G

글·유재영 기자

과거-현재 '흐름' 알아야 미래가 호뭇하다

11월 '인구주택총조사'… 저탄소 녹색성장 항목 등 국책 지원

숫자의 나열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통계. 하지만 통계 속에는 세상사가 숨어 있다. 통계를 알면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9월 1일은 '통계의 날'이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인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한 것이다. 또 오는 10월 20일은 공식 통계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첫 번째 '세계 통계의 날'이기도 하다.

통계의 날은 수많은 기념일 가운데 하나이고 통계는 빽빽한 숫자의 나열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통계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통계 속에 세상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집단의 규모나 분포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나타낸다.

창업·이사·지역정보 등 지도상 그림으로 통계 체험

따라서 숫자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

동아DB

통계청(청장 이인실·가운데)은 배우 지진희, 한효주 씨를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에 현명한 선택의 잣대를 쥐는 셈이다.

통계는 쓰임새가 많다. 여론조사, 정책 결정, 수요 파악, 날씨 예측 등에 통계가 사용된다. 말이나 글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물가나 실업률 통계를 참고하기도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총 4회 열린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작을 살펴보면 통계가 실생활과 얼마나 깊이 관련돼 있는지 알 수 있다.

15년차 제과기술자는 수년간의 기록을 통해 가랑비가 오는 날 빵이 더 잘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용돈 씀씀이가 큰 딸을 걱정하던 주부는 청소년 용돈 통계와 그간 가계부 자료를 비교해 딸의 경제관념을 세워주었다.

취업난 극복에 번번이 실패하던 구직자는 면접 때 으레 나오는 '희망연봉'에 대한 답변에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 규모와 업종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우리나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적정임금을 책정한 논리적인 답변이 돋보였던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는 자신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하면 동일 연령대의 통계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어려움 없이 통계를 접할 수 있다. 창업정보, 이사정보, 지역정보 등을 지도상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도 숫자의 나열이 아닌 시각화된 자료로 '내 곁의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계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재"

일반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통계 자료로 읽기 쉽게 풀어내 정보와 재미를 함께 끌어내고 있는 통계청 블로그 '통하는 세상'은 8월 말 현재 방문자 수 1백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개설한 트위터 역시 팔로어 3천명을 바라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8월 20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주요 통계지표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국가 최대 규모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7일에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통계청 최정수 대변인은 "통계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라며 "사회 흐름을 짚어내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통계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이인실 통계청장

"사회복지 분야 통계 확충 필요"

이인실(54) 통계청장은 대표적인 여성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난해 5월 통계청 첫 여성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국가통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1백30여 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통계청이 세계 통계의 선두로 나아가게 된 것 등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은.

우선 경제적인 조사다. 2005년 14만 가구(0.9퍼센트)에 그쳤던 인터넷 조사 참여자를 올해는 5백60만 가구(약 30퍼센트)로 확대해 응답자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도 약 1백6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센서스다. 인터넷조사가 30퍼센트면 종이 조사표 약 5백60만 부가 절약된다. 자전거 보유, 교통수단 이용현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항목도 조사해 국가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수치와 일반인이 체감하는 수치에 차이가 있는데.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농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직장을 잡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지표 외에 좀 더 세분화된 보조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과 관련해서 '주관적인 고용사정'에 따라 유사실업으로 체감하는 인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시간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경제통계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통계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출산력 통계, 신생아 사망통계 등 다양한 인구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또 여성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지출 분석을 강화해 맞춤식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과의 혼인이 전체 혼인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를 반영해 다문화가족 인구통계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고용 문제다.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올해 2회로 늘렸으며 2011년부터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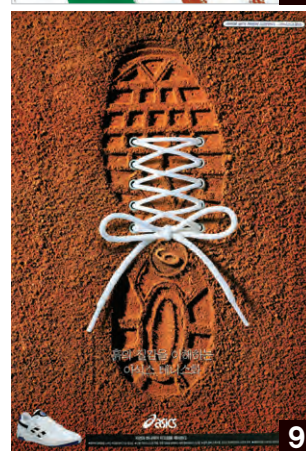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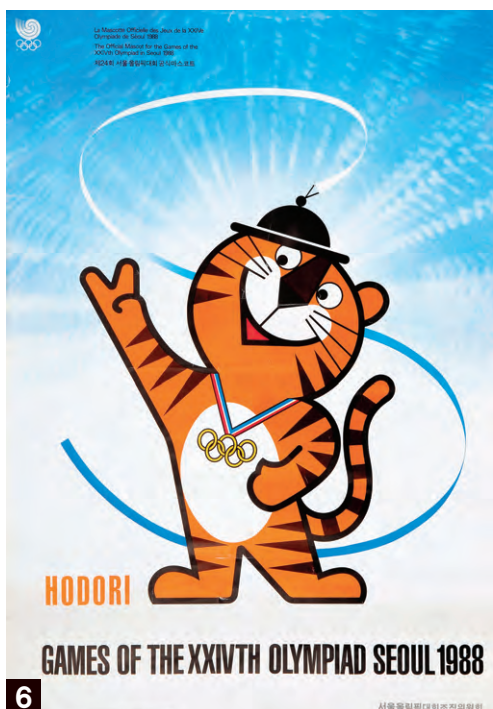
1 한국의 멋-호랑이 포스터(1987년, 700×920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2 경성방직주식회사 태극성 홍보 포스터(1920년대 후반, 620×925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3 크리스마스실 홍보 포스터-보건(1934년, 450×380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4 한미연합군 안전 포스터(1950년대, 393×517mm,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소장)

포스터로 보는 한국사 100년

1백 여년 동안 국내에서 만든 포스터 1백40점 선보여

'값싸고 질긴 광목 태극성 광목, 조선서 일등 광목 태극성 광목.'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삼단 같은 머리를 쪽진 여인이 손에 펼쳐 든 것은 흰 광목이다. 그림 속 여인의 뒤편에는 반닫이가 놓여 있고 둘레에는 삼각산, 천도복숭아, 호미, 산삼, 불로초를 단순화한 상징물이 보인다. 192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때 경성방직주식회사에서 만든 상업용 포스터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시대상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한국포스터디자인 백년전'이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에서 9월 13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1900년대 초 무렵(연도 미상)에 제작된 고종황제 존영 포스터부터 2007년 아트북 전시 포스터까지 약 1백 년 동안 국내에서 만든 포스터 1백40점이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5 건설부 포스터-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1970년, 534×765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6 서울올림픽 호돌이 공식 마스코트 포스터(1983년, 594×841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7 문화부 포스터(1990년, 753×1055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8 2002 한일월드컵 공식 포스터(2002년, 650×1010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9 제11회 파리국제포스터살롱 대상 포스터-아식스(1997년, 607×898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10 제5회 601 아트북 프로젝트 포스터(2007년, 1090×790mm,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포스터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 포스터의 제작 목적과 형태가 달라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상품 판촉과 국민 계몽의 성격을 띠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반공, 대국민 홍보용, 기업의 상업용 포스터가 주류를 이뤘다.

1980년대 포스터에는 인물이 많이 사라지는 대신 호랑이, 탈, 미륵반가사유상 등 한국 전통문양이 자주 등장했다. 1990년대에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이 유행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포스터에 홍보용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미지 홍보성 디자인이 대세다.

한편 전시장에는 인기 포스터나 포스터 속의 아름다운 한국 여성상을 투표로 뽑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한 전시 연계 행사로 '포스터, 시대를 그려내다'를 주제로 강연회도 열린다. 9월 2일 오후 4시에는 변추석 2002 한일월드컵 공식 포스터 공동 디자이너, 9월 6일 오후 4시에는 박암종 근현대디자인박물관장과 백금남 성균관대 교수가 강연한다. G

글 · 최은숙 기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 02-2266-7188
서울디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전시 기간 9월 13일(월)까지 **장소**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전시 작품 포스터 1백40점 **관람료** 무료

조도자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무총장

"개도국 여성에게 IT는 훌륭한 비즈니스 도구"

"정보기술(IT)은 어떤 기술보다도 여성 친화적입니다. 육체 활동보다는 소통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IT는 훌륭한 비즈니스 소통 도구죠. 개발도상국의 여성 의사결정자들이 IT교육을 받아 자기 나라에 전수한다면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겁니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조도자(44) 사무총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은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20개 개도국의 여성 공무원들을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해 IT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의 대열에 올라섰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은 공적개발원조 중에서도 '여성'과 '가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도 강조했듯 전 세계 여성과 가족의 행복은 인류 행복의 버팀목입니다. 이번 IT교육은 여성과 가족 분야에 특화된 한국형 ODA를 정립하려는 첫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추진하는 여성가족 분야 ODA 사업으로는 ▲개도국 여성 역량 강화 교육 ▲빈곤여성 지원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강사 양성 ▲국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이 있다.

"최근 숙명여대에서 '여성을 위한 e-Biz 교육훈련(8월 4일~24일)'을 마쳤는데요. 참가자 중 피지의 여성부 여성권익 담당관인 마켈레시 도모나키바우 씨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에서 배운 e-Biz 기술을 피지 여성들에게 알려서 전 세계에 자국의 관광상품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도록 돕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e-Biz교육이 그곳 여성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조도자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무총장은 "여성·가족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T교육은 여성·가족 분야 한국형 ODA 정립 첫 시도"

재단은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IT교육(8월 23일~9월 3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에 IT교육과 e-Biz교육을 각각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9, 10월에는 한국의 강사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IT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할 예정이다. 10, 11월에는 직업능력개발 교육도 예정돼 있다.

교육 대상자는 각국의 여성 공무원, 여성 경영인, 비정부기구(NGO) 리더 등이다. 이들은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이란,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알제리, 칠레, 가봉 등 6대륙 20개국에 분포돼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G

글·최은숙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 070-7730-6017~8 www.iwff.or.kr

보이지 않는 총알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공공장소 금연,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이야기 소재가 많은 사람이다. 여기에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까지 뛰어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MBC 아나운서 김지은(41) 씨는 그런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만의 색깔을 더해준 건 '책'이다. 그의 가방은 늘 책들로 묵직하다. 가방의 무게는 좀처럼 줄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벼워진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다.

무수한 책들을 읽어낸 독서광의 귀결은 그를 '작가'로 이끌었다. 벌써 〈서늘한 미인〉(2004), 〈예술가의 방〉(2008) 등 미술작품과 관련된 두 권의 저서와 한 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북 마니아'인 김 아나운서가 지난 7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아침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게스트들이 출연해 그와 한바탕 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출연한 소설가 김영하 씨와는 방송 도중 한 권의 책으로 통했다. 바로 헝가리 여류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다.

김영하 씨뿐 아니라 은희경, 신경숙 씨 등 대한민국 대표작가들이 사랑하는 책으로도 유명한 이 책은 김 아나운서가 몇 달 전 우연히 검색을 하다 알게 됐다. 그리고 이내 책을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다.

이 책은 알파벳 순서만 다른 쌍둥이 형제 루카스(Lucas)와 클라우스(Claus)의 처절한 운명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은 3부작 소설이다. 이 책의 백미는 간결한 문체. 부사나 형용사를 철저히 배제한 문장을 읽다 보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외국에선 각기 다른 제목으로 출간됐지만 우리나라에선 하나의 제목에 부제를 달았어요. 1권은 〈비밀노트〉(1986), 2권은 〈타인의 증거〉(1988), 3권은 〈50년간의 고독〉(1991)으로요. 따로 읽어도 무방하지만 차례대로 읽는다면 이 책이 그리는 참혹한 현실이 뼈저리게 와닿을 거예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아고타 크리스토프 지음 / 까치 펴냄 · 각 8천원

어린 시절 전쟁을 겪은 작가는 체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주인공인 쌍둥이 형제는 작가와 그의 오빠를 투영한 캐릭터다. 인류가 낳은 비극적 현상인 전쟁 때문에 참담하게 변해가는 형제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전쟁, 혹은 크고 작은 다툼이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지 보여주죠."

1권은 쌍둥이 형제의 어린 시절, 2권은 서로 떨어지게 된 쌍둥이 형제의 청년 시절, 3권은 중년이 돼 만나게 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러나 1권에서 3권으로 갈수록 이야기는 미궁으로 빠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는 "삶이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의 연속"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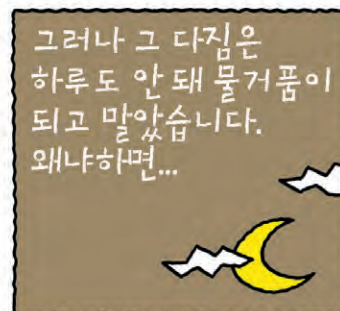
"그래도 작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서요. 그의 말처럼 책이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뜨거운 삶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MBC 김지은 아나운서가 추천하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전쟁의 뼈아픈 상처 속 희망 이야기"

진정한 휴가란…

글과 그림·최영순

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간이 휴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 탈무드

Culture

"유노윤호! 한류 열풍을 부탁해"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버무려낸 뮤지컬 〈궁〉

"뮤지컬은 처음이라 신인이란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 연기가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만큼 저에게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뮤지컬 〈궁〉의 주인공 이신 역에 발탁된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는 뮤지컬 데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2010년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다'라는 독특한 판타지 설정의 창작 뮤지컬 〈궁〉은 지금까지 1백40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한 만화 〈궁〉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격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궁을 배경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황태자 이신과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세자빈 채경이 펼쳐나가는 사랑 이야기다.

만화뿐 아니라 2006년 드라마로도 제작돼 세계 23개국으로 수출된 바 있어 내용 면에서는 색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공연이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이유는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의 출연과 한국적인 소재, 탄탄한 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

송병준 총예술감독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소재인 궁을 배경으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로맨틱한 사랑을 그린 것이 매력"이라며 "만화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무대미술과 의상,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버무려낸 뮤지컬 〈궁〉은 한류 팬을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9월 8일~10월 24일 화~금요일 오후 8시, 토 · 일요일 오후 3시, 7시(추석연휴 9월 21~23일 오후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5955 www.theateryong.or.kr

● 연극 〈템페스트〉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걸작인 〈템페스트〉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더해 재해석한 작품. 내년에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이기도 하다.

일시 9월 12일까지 화~목요일 오후 8시, 금 · 토요일 오후 4시, 8시,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5-3966~7 www.sac.or.kr

●● 무용 〈Soul 해바라기〉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 우리 전통 춤과 음악, 재즈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일시 9월 7, 8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

4대강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